

투자보호용 거래정지에 더 커진 원유ETN 괴리를 투자자들 "손절매 기회마저 놓쳐"

거래정지後 괴리율 1.5배이상 급등
상품 실제가치 수렴엔 큰 손실 우려
"괴리율 30%수준으로 관리했어야"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원유 ETN(상장지수채권)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거래정지 기간 괴리율이 급등하면서 손실 폭이 커진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정지된 레버리지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ETN은 평균 291.83%의 괴리율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괴리율도 널뛰기를 계속하는 양상이다. 6일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다음 날 다시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기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과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은 각각 520.26%, 392.37%의 괴리율을 보였다. 직전 거래일(27일) 기록했던

종목명	4월 27일	5월 4일
QV	242%	392.37%
미래에셋	44.89%	60.01%
삼성	331.88%	520.26%
신한	104.69%	194.68%

※출처: 한국거래소

331.88%, 242%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급등했다. 거래 정지로 종가는 그대로였지만 지표 가치는 하락하면서 괴리율이 벌어진 영향이다.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194.68%), '미래에셋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60.01%)도 모두 괴리율이 상승했다.

괴리율이란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괴리율이 큰 폭으로 벌어질수록 해당 ETN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원유 ETN 상품이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향후

ETN 가격이 실제 가치에 수렴할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로 발이 묶인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거래소의 매매정지 조치가 오히려 손실 폭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유가 하락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손절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갑작스러운 입장에서 처음부터 괴리율을 30% 수준으로 관리를 하거나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괴리율이 20% 이상인 원유 ETN 종목은 정상화(12%)될 때까지 특정한 가격으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단일가 매매에서도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3매매일 간 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미래에셋 WTI원유 선물'을 제외한 레버리지 상품 괴리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단 하루도 없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고령인구 800만 '케어푸드' 뜬다

올 국내시장 2兆로 10년새 4배 '썩' 한국아쿠르트 등 주도권 경쟁 치열

성장 정체에 직면한 식품업계의 눈이 '케어푸드'로 쏠리고 있다.

케어푸드는 영유아부터 노인, 환자까지 맞춤형 식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연화식, 치료식 등 기능성 식품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으로 총인구의 15.7%에 해당한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넘어섰으며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케어푸드 시장의 성장여력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0년대 초 5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올해 2조 원 규모로 10여 년 만에 4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 업체 간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케어푸드는 기존 제품보다 먹기 편하면서 영양은 유지해야 하는 제조 특성상 일반식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CJ제일제당과 삼성웰스토리 등은 임직원 자사물, 대형 병원, 요양원 공

급 등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시장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케어푸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이 늘면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쿠르트는 지난달 28일 케어푸드 브랜드 '잇츠온 케어(eats on care)'를 론칭하고 케어푸드 시장에 뛰어 들었다. '잇츠온 케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케어 브랜드로 한국아쿠르트는 이를 중장기 육성 브랜드로 정하고 당뇨 환자식, 건강 유지용 일반식, HMR 연화식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아쿠르트의 신제품은 '잇츠온 케어 온 검은깨&콩(이하 잇츠온 케어온)'이다. 이 제품은 환자용 균형 영양식으로 검은깨와 검은콩을 포함해 총 22가지 곡물을 넣어 만들었으며, 비타민 12종을 비롯한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 미네랄 12종을 더해 필요한 영양성분을 꼼꼼히 채울 수 있다. 영양 흡수 및 소화 속도 등을 고려해 동·식물성 3가지 단백질을 다양하게 넣어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14면에 계속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전세계 모델 된 '무관중' 한국 야구 2020 KBO리그 개막전 KIA 타이거즈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5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첫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KBO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

"코로나 지원책 내나라"... 해외진출 은행 압박

베트남 중앙銀, 지원방안 요구
선방하던 해외수익 악화 우려

시중은행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에 따른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신남방 핵심 국가인 베트남 금융당국이 한국 시중은행들에 현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장 2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시장 리스크와 함께 그나마 선방하던 해외시장 수익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3월 13일 국내 은행을 포함한 해외 은행에 코로나19 피해 예상

베트남 국책은행 '코로나19 지원책 마련' 지시

일시	2020년 3월 13일
규칙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코로나19 피해 예상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후 매월 10일 중앙은행에 보고 시행규칙 발효
내용	원리금 상환기간 조정, 이자 및 수수료 면제·인하, 자산건전성 유지 여부 등
대상	신용기관(정책 은행 제외) 및 해외 지점 은행(FBB, 한국 시중은행 포함)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자국에 진출한 해외법인, 지점, 사무소까지 포함한 매우 강력한 조치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은 현지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기간 조정, 이자 및

수수료 면제·인하, 자산건전성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대책안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안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10일 제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한·KB·우리·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글로벌 부문 순이익은 1분기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글로벌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한 89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신한은행의 글로벌 순이익이 8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4% 늘어난 수치다. 신한은행의 해외 점포별 순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신한베트남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지역의 이자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차 'GBC' 6년 만에 첫삽

서울시 "이번주 착공 허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속원사업으로 꼽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부지 매입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뜬 전망이다.

5일 서울시 관계자는 "4월 29일 현대차그룹에서 GBC 착공계를 제출했다"며 "이르면 6일 늦어도 이번 주 중 착공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현대차가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지 약 6년 만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매입대금은 현대차 55%, 현대모비스 25%, 기아차 20% 등의 비율로 나눠 부담했다. GBC는 높이 569m,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국내 최고 건물로 2016년 착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너무 높은 건물은 군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국방부 반대 등에 부딪혀 착공은 몇 차례 미뤄졌다. 강남 요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 우려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부터다. GBC로 신규 일자리



현대차 GBC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122만 개가 생기고, 27년간 26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공장 섣달 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BC 건립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당시 2020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 일정을 세웠다. 현대차 관계자는 "착공 인가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유창욱 기자 woogi@

〈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 국내 유턴〉

“리쇼어링 통해 제조업 활성화·고용 창출 두 토끼 잡아야”

중기·소상공인 생존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에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100일을 맞은 지난달 28일, 이투데이 본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전략 및 대안’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 사회=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소상공인 직격탄… 중소기업은 2분기부터 위기 가시화… 시간차 충격 도래 = 전문가들은 먼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 닥친 충격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차남수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경기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은 2월부터 본격화해 매출액이 98%가량 줄어들고 있고 업종별 영향도 여행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며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소상공인에게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갑자기 30조~40조 원까지 늘려 대출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지만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관련한 문자는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윤재 교수는 현장에서 온라인·모바일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는 “중소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온라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50명 내외를 받는 수업에 100명 이상 신청하는 등 온라인 판로를 뚫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저조하면 온라인으로 사업 기반을 옮겨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은 이런 부분에서 스킬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화두에 올랐다. 차 연구위원은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이 큰데, 임대료는 통상 30% 비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계속 축적돼온 최저임금과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민선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업 불황이 지속될수록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포기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공공 부문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충격이 시간차를 두고 닥치고 있다 분석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B2B 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출 기업과 연결돼 있는데, 이들에게 영향이 나타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1~3개월이 지

중소, 디지털인재 육성·제조공정 스마트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R&D·산학협력·인력양성 등 묶은 ‘강력한 패키지 지원’ 정책 나와야

소상공인, 온라인·모바일 관련 교육 강화… 판로개척 적극 지원

‘중개플랫폼 독과점방지법’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법안 제정 필요

난 뒤”라며 “다시 말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B2B 기업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1분기 자금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며 “직전 분기 대비 1분기 수출이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이 78.7%로 많았고 3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47.4%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위협해지면서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협력적 분업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대기업이 대금 결제를 미루면 중소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할 물건도 줄게 된다 것이다.

추 본부장은 “정부는 대출 만기를 연장할 뿐 추가 대출은 사실상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그마저도 시중은행은 고작 2~3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다. 이러면 당장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기업들의 경우 도산 위험이 커져 산업 구조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짚었다.

◇대안은 ‘리쇼어링’… “강력한 패키지 지원 필요” = 코로나19가 촉발한 ‘전대미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먼저 ‘리쇼어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세계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제안이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남

아메리카, 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이 위태로워지면서 이곳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매우 긴장한 상태”라며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의 재활성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쇼어링 지원을 자금지원, 입지 확보 등에만 국한하면 안 되며 연구개발(R&D),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과 패키지로 묶은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효과적인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추 본부장은 “지금까지 돌아온 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건, 일반 중소기업도 세 건 정도로 많지 않은데, 어떻게 리쇼어링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기업을 육취는 규제문제부터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은 ‘생존’이란 커다란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생존 이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을 보다 스마트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투 트랙’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디지털화한 숙련 인구를 육성하고, 제조공정을 스마트하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 절실…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한 인력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2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속속 해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추 본부장은 “실업급여 등 급여를 보전해주는 대안이 많고, 중소기업 어디든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니 다른 직장 구하기도 쉬워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에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시장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확실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일자리를 지키는 전략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 인프라에 재정을 쏟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연구위원은 “확실한 유인은 ‘인센티브’라며 “일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유럽 방식으로 바뀌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이 꼽혔다. 노 연구위원은 “노동계·경영계가 양보 또는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특히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사가 소통해 온누리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며 “고용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위기 극복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까지 최소 2년여가 필요하겠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1997년도 IMF 위기는 달러가 부족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시장이 문제였듯 앞선 위기에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다.

회복 기간 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이후 영세한 중소기업, 건설한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을, 차 연구위원은 ‘중개플랫폼 독과점방지법’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본부장은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비대면 등 시장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뀐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오히려 희망을 걸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리/이다원 기자 leedw@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를 초청,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코로나 극복 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희 이투데이 IT중소기업부장.

“코로나 쇼크, 2분기가 정점”... 재계, U자 반등 기대

138개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10.5% 전망
 ‘소비심리 척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하반기 회복 가능성
 업종별 회복 시점 엇갈려... 정유·항공, 저점 길어질 듯

재계 주요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실적 저점을 2분기로 점치고 있다. 다만 저점 통과 후 V자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반기 들어 U자형 회복세 정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5일 재계 주요 기업에 따르면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실적 저점은 2분기, 길게는 3분기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역시 국내 주요 상장사 138곳의 2분기 영업이익을 약 19조9719억 원(4월 29일 기준)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조3155억 원)과 비교하면 10.5% 감소한 것이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이었던 1월 말 전망치(27조2502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26.7%나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정도로 국내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 업종별로 저점에 머무는 기간, 회복세가 시작되는 시점 등은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소비심리 척도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시장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4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 남미에서는 확산세가 지속 중이어서 여전히 판매 부진이 시달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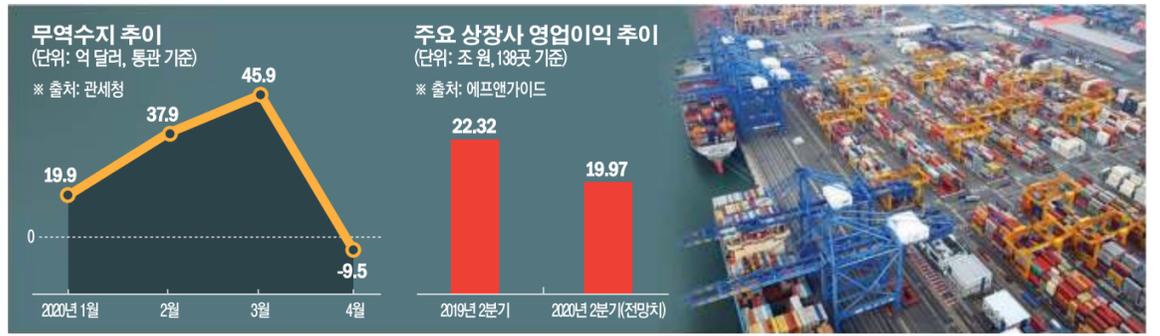
다. 일부 지역의 판매 상승이 또 다른 시장의 판매 하락으로 상쇄되며 2분기가 수요의 저점이 될 전망이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연구원은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분기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빠르게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비해 온라인·B2B 채널을 강화 중이다. LG전자는 수요 위축기에 대비해 보험형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역시 2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부문 산업 수요가 지역별로 55%까지 폭감하면서 판매가 반토막 난 상태다. 4월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5월부터 주요 생산설비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분간 부분 가동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3분기 중반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동차 산업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내놓고 있다”며 “단순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넘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1분기부터 직격탄을 맞았고 2분기 역시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보유 중인 재고 가치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유가 급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1분기에 이미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분기에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회복이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유 감소 등의 국제적 공조와 경기회복 기미가 병행할 경우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역시 저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1분기에만 무려 6000억 원에 육박한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2분기 전 세계 항공사들의 손익이 전년보다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에도 힘이 실린다.

이렇듯 재계 주요 기업은 2분기 실적 하락폭이 1분기보다 커지며 저점을 형성하

고 반등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시절과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여파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업종별로 2분기, 길면 3분기를 실적의 저점으로 판단 중이다. 백신 개발을 포함한 긍정적 변수에 따라 저점에서 회복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유진 기자 eugene@
 권태성 기자 tskwon@

“세계 경제 회복 조짐” ‘낙관론’ 꺼내든 월가

“EU·美 지난달 바닥 찍어”... 일각선 재확산 우려

미국 월 스트리트의 대표 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세계 경제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자 고객 보고서에서 “경제 활동은 아마도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며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함으로써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경제에 대해 “현 2분기에는 평균 32% 위축되었지만,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16%, 13% 급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에 상반기 침체분을 거의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일자 보고서에서 “우리가 추측한 방대한 데이터는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기대감 개선, 사람들의 이동이 최악의 분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점, 감염 확산 초기에 비해 가계 지출의 축소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아야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 경제가 2월에 바닥을 쳤다고 본다”며 “유료존은 4월에, 미국은 4월 하순에

각각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미국 뉴욕증시의 낙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3조 달러 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준은 4일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과 함께 회사채 시장 지원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런 낙관론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HSBC홀딩스의 제임스 포메로이 이코노미스트는 4일자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반전은 기대하지 말라”며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포메로이는 중국 경제지표를 인용, “사람들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개인소비 회복은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한 가지 우려로 ‘제2의 물결’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선불리 하면 감염 대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하치우스도 이 점에 주목, “세계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단점”이라며 “경제가 재개될 때 감염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

“이제, 55세부터 시작하세요”

55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춰”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만55세로 낮췄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으로 더 담담하고 즐거운 노후를 누리세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금융위원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원격의료·에듀테크... '한국판 뉴딜' 태클 가는 진보단체

“공공의료 확대... 공교육 강화를 대규모 국정사업 토목사업 불과”

정부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환으로 원격의료와 에듀테크(온라인교육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진보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자칫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 정책 비판과 대안

뉴딜정책	원격의료	에듀테크 (온라인교육 서비스)	대규모 국정사업
진보단체 비판	사실상 의료민영화	교육 분야 규제 완화	MB정부 4대강 우려
대안	공공의료 확충	공교육 강화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을 처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

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정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6

월 초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진보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고, 에듀테크(온라인교육 서비스)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라는 것이다. 진보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는 원격 의료라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에듀테크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경제학자는 “규제 완화로 가득한 4차 혁명 프로젝트에 돈을 대겠다는 것이고 그중 많은 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좌절됐던 민영화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테크도 맥킨지가 다보스포럼에서 의료와 더불어 규제 완화가 돼야 할 분야로 지목한 영역이고 대규모 국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도 결국 MB정부의 4대강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격의료, 에듀테크 등을 추진할 경우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보학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만약 정부가 원격의료 등을 추진한다면 이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휘발유값 '1174원' 5일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의 표지판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74원으로 표시돼 있다. 주간 단위 전국 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해 리터당 1301.8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장년 구직자 60% '장기 백수'

10명 중 4명 직종 바꿔 구직... 희망 월급 평균 244만 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재취업을 위해 직종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5일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268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8%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6개월-1년' 26.5%, '1-2년' 25.7%, '2년 이상' 5.6%였다. 이어 '3개월-6개월'이라는 응답은 26.5%, '3개월 미만'은 15.7%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직종 변경을 희망했다. 재취업 시 본인이 그간 경험한 주 직종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0.8%, 직종을 변경해서 재취업하겠다는 응답이 39.2%였다. 직종을 변경하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연령 제한 등으로 주 직종 취업 가능성 희박' (43.7%)을 꼽았다. '희망 직종이 중장년 취업에 용이하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직종 변경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연구직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단순노무직 50.0% △사무관리직 44.2% △

영업판매직 43.7%의 순이었다.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희망임금은 평균 월 24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의 퇴직 시 임금인 월 315만 원의 77%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12월 조사된 희망임금 252만 원보다 8만 원 적은 액수다. 희망임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29.5%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1.6%)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3.8%) 순이었다. 특히, 퇴직 시 월 500만 원 이상 고임금자 비율은 21.6%에 달했으나, 재취업 시 월 500만 원 이상 희망자는 1.5%에 그쳤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장기 실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장년 구직자들의 직종변경이나 눈높이 조정과 같은 적극적인 자구노력은 재취업에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재난지원금 8월까지 써야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못해 선불카드는 온라인쇼핑몰 가능 지역상품권, 시·군·구로 제한

4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지방자치단체·지급수단별로 상이해진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급수단이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사용 방법

현금(취약계층)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중이)
신청 시기	자동 지급	11일	18일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9월 1일 0시 포인트 소멸)		5년
사용 지역	제한 없음	광역단체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사용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제외 (단 선불카드는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사용 가능)		

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재난지원금도 선불카드 같은 형태로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지역도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카드로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사용지역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기도 한다.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이며 현금의 사용기한이 없고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최장 5년간 사용 가능하다. 포인

트 형태인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9월 1일 0시부터 모두 소멸되지만,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따져 미사용분을 직접 환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결과적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지급이 빠르고 사용지역이 광범위하지만,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이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과 점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에 마스크 5680장 전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마스크 5680장을 기부했다. 이번 마스크는 공단 전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1000만 원)을 통해 마련됐다. 전달된 마스크는 지역적으로 코로

나19 확산 위험이 큰 서울, 인천, 의정부 등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포된다. 공단은 올해 3월 성금 2000만 원과 개인 보호장비세트(Level D Kit) 240개, 불침투성 보호복 3400벌을 대구지역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감염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확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콜센터가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정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등 최대 90%(2500만 원 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 하면 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숨은 감염원에... 지역발생 0명에도 불안

2주세 감염경로 모르는 확진자 8명 조용한 전파 통한 '2차 대유행'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지역발생이 이틀째 0명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재확산 불씨는 여전하다. 최근 확진자 중에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명 증가한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원 해외유입 사례로, 지역발생 사례는 0명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인 31명 환자가 확인된 2월 18일(1명) 이후 77일 만에 최소치이며, 지역발생 0명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단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는 8명이었는데, 이는 숨은 감염원이 존재하고 추가 전파 가능성을 의미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으로서 지역사회 이단기에서, 특히 취약집단이나 사각지대, 또는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 비중이 높은 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력이 높은 점 등 여러 이유로 바이러스 보유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산발적이고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다 다시 대유행의 조건이 맞아서 특별히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노출됐을 경우 또 다른 유행 확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신종플루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방대본의 판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전국민고용보험’ 윤곽... 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특수고용직·예술인 먼저 포함 후 단계적 확대 방침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추진... 재원 마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구상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일단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0대 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기업 지원금 등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입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구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공개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부담을 안게 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환 기자 whan@

‘국민 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여야, 8일 개최 합의했지만
통합당 내부 “소집 반대” 반발

미래통합당이 8일 개최에 합의했던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져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것이니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중요성을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은 (이번 주에 선출되는 여야의) 새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 국회 회기 종료 5월)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쯤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의 ‘n번방 재발 방지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는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달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다.

통합당 역시 원래는 ‘8일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되, 본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즉 ‘투표 불성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290명)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된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은 하루도 못 가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내부 컨센서스(합의)가 잘 안 된 것 같다. (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린이날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文 “어린이들 잘 참아줘 코로나 극복”

어린이날 맞아 ‘靑 랜선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제 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영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은 어린이 맞춤형 소통방식을 선택했다.

대통령 내외는 목소리 녹음, 영상 촬영을 통해 직접 참여했다. 영상 속 캐릭터로 등장해 어린이들을 안내하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어린이들이 대통령 내외를 따라 본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무실을 구경하면서 특별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포맷은 코딩 등 교육용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제작한 ‘청와대 마인크

래프트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청와대 가상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영상 속 문 대통령 내외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씩씩하고 밝게 이겨내고 있어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데 못 만나고, 온라인 개학도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른들도 여러분처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를 이기는 영웅”이라며 “2020년 오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우리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정일환 기자 whan@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코로나 발원지 놓고 美·中 갈등 격화... 또 中 편든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제 재개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불꽃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제2라운드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시작됐는데 대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서 "확증을 얻기 위해 정보기관이 검증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가세한 것이다. 트럼프는 주말 폭스뉴스와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끔찍

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이날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2000억 달러(약 245조1000억 원) 규모의 미국 상품 구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 무역협상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도 발끈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4일자 사설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격분했다. 이어 "폼페이오가

폼페이오 美 국무, 트럼프 이어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 주장에 中 "폼페이오 제정신 아냐" 격분 WHO "美 추측일 뿐" 갈등 가세



거브러여수스(왼쪽) WHO 사무총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달라"면서 "물론 증거를 보여줄 리 없다. 폼페이오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것"이라고 응수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재차 도마에 오르자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실책을 가리고자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신히 휴전에 들어간 무역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중국 편향 논란을 빚었던 세계보건기구(WHO)마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우한 발원설'에 대해 WHO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또 노골적

으로 중국 편을 들고 나섰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4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도 "코로나19에 대한 1만5000개의 유전자 배열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자연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WHO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후 트럼프의 재고를 바라다며 잠시 꼬리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날 작심 발언으로 미·중 간 갈등에 부채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자유 향한 절규... 2020 플라처상 '속보사진' 부문 수상작

2019년 9월 2일 홍콩 몽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도중 경찰에 의해 억류된 한 여성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는 이 절박한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2020 플라처상 속보사진' 부문상을 수상했다. 작년 6월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중국 정부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변지며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 플라처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공공서비스' 부문상은 앵커리지데일리뉴스와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 돌아갔다. 이들은 1년여에 걸친 공동 취재를 통해 알래스카의 성폭력 문제를 파헤쳤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실업수당 고갈...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에 SOS

370만 명 신청... 3.5억 달러 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 내 실업대란으로 지방정부의 실업수당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예산이 고갈된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에 손을 벌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7월 말까지 실업수당 용도로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2000억 원)를 빌릴 수 있는데, 이 중 3억4800만 달러를 실제로 빌렸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 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외에도 일리노이 주에 126억 달러, 코네티컷 주에 최대 11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는데, 4월 말 기준 실제 대출을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약 6주 동안 3000만 명 이상이 실직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37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들쭉서 놓기 한 달 전인 2월 말 31억 달러이던 실업수당 기금이 4월 중순엔 19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실직

자가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실업수당 기금이 한 달 반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결국 예산이 고갈되면서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손을 벌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 주 안에 다른 주들도 연방 정부에 손을 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실업수당 기금 잔액이 4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이상 주들은 이미 기금이 바닥나 기본 실업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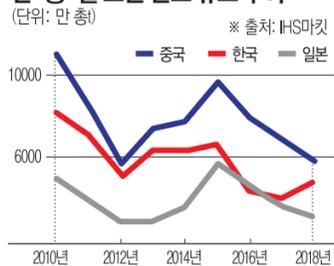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세금 인상,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실업수당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댔다.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110억 달러를 빌린 캘리포니아는 2018년이 돼서야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했다. 대출금을 갚기가 무섭게 또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이번에는 소득세 감소 등 세수에도 차질이 생겨 곳간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日 '코로나 병원선' 검토에 물려든 조선업계

병상 부족에 도입 추진 수주 가뭄도 조선사들 치열한 물밑 싸움 나서

한·중·일 조선 건조 규모 추이



선박 수주난으로 고전하던 일본 조선업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병원선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각 업체는 대형 선박 수주가 메마른 상황에서 병원선 수주라도 따내 보릿고개를 넘겨보겠다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병원선 프로젝트'에 일본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와 페리에 강한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30일 통과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병원선 도입에 대한 조사비를 따로 배정했다. 정부가 그리는 병원선은 총 길이 200m, 폭 20m 이상의 장거리 페리급이다. 건조 비용은 250억~300억 엔(약 2867억~3441억 원)으로 잡았다. 1척당 수주액은 대형 유조선 3척분, 철광석 등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5척분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병원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도입이 검토

됐지만, 평상시 운용 형태와 유지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육상 의료시설의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다시금 의제로 떠올랐다.

병원선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처럼 대량으로 수주할 수 있는 성격의 선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 조선업체들이 기대를 거는 건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심각한 불황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의 수출 선박 수주 건조량은 1740만톤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조선국제박람회도 잇따라 중단돼 해외 선주들과 마주할 기회도 놓쳤다.

다만, 병원선이 현재의 수주 가뭄을 극복할 완벽한 돌파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병원선은 의료 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내장 비용이 예산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채산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미셸 오바마 패션 '제이크루' 파산보호 신청

코로나19 여파 경영난 가중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즐겨 입으면서 유명세를 탄 미국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첫 미국 대형 소매업체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이크루는 이날 버지니아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이크루는 채권단과 16억5000만 달러(약 2조220억 원)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단은 4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989년 뉴욕에 첫 매장을 연 제이크루는 젊은 엘리트층이 즐겨 입는 캐주얼 스타일, 일명 프레피룩(Preppy look)으로 명성을 날렸다. 특히 미셸 오바마 여사가 즐겨 입으면서 브랜드를 대중에게 독특하게 인식시켰다.

2011년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 그룹(TPG)과 레오나드그린엔파트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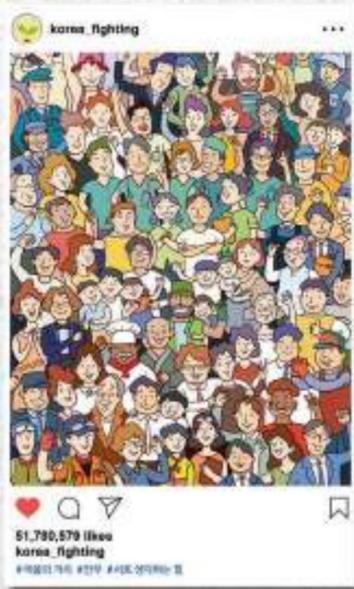


미국 NBC의 '제이 레노 쇼'에 제이크루 옷을 입고 등장한 미셸 오바마 여사. 블룸버그

가 30억 달러에 제이크루를 인수하면서 매장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등 9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반면 부채도 함께 폭증했다. 2010년 5000만 달러이던 부채는 올해 2월 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악재가 됐다. 이미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제이크루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3월에만 500여 개 점포의 문을 닫았고 직원 수만 명을 감원했다. 코로나19 여파는 매장 폐점뿐 아니라 자매 브랜드인 '메이드웰'의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걸리면 어찌죠?”

하루 2만여 건의 상담전화 중 대부분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걱정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마음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SK하이닉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권 '실적 쓰나미' 대비 '성장 → 내실 강화' 급선회

'2분기 위기' 공포 확산

은행권이 2분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두고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이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올 2분기 4대금융지주 순이익은 2조7455억 원으로 전년(3조2559억 원)보다 15.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 보면 신한금융의 올해 2분기(4~6월) 순이익은 8601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9961억 원)보다 10.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KB금융 순이익 추정치도 8266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9911억 원)보다 16.6% 낮은 수준이다. 하나금융 순이익은 5774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6584억 원)보다 12.3%, 우리은행 순이익은 4844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6103억 원) 대비 20.6%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유예·면제' → '연체율 상승' 우려... '경영 안정'에 방점 = 수익성 악화와 함께 금융건전성 지표인 연체율도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분기에 소상공

연체율 등 리스크 최소화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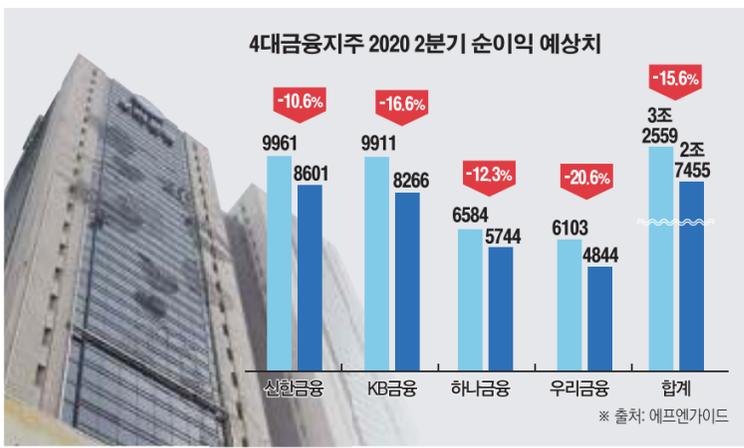
이자유예·면제, 잠재적 부실 뇌관 시중銀 주도 소상공인 지원도 부담 신한, 신용체계 정교화 등 추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사활

KB, 자산관리·IB 경쟁력 강화 하나, 베트남 등 본격 해외공략 우리, 핵심산업 내실 성장 가속

인 대출을 대거 시행했고 내달부터는 소상공인 2차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중심이었던 1차와 달리 2차는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한다. 결국 이자유예·면제 같은 코로나19 대책이 시중은행 주도로 확대되면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는 안정에 초점을 맞춰 서둘러 지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코로나19 위기 본격화에 대비해 그룹 공동 위기관리 대응 계획 수립과 함께 '원(one) 신한' 기반의 기초체력 강화 전



락을 통한 위기 극복에 전념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3월부터 그룹 차원의 공동 위기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그룹 위기관리 시스템을 격상한 상태다.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향후 신용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 잠재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용 리스크

체계를 보다 정교화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주력 = KB금융 역시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핵심 성장동력인 투자금융(IB)·자산관리(WM)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산업(비즈)별 운용전략 재편을 통해 IB부문 시장지배력 확대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수익성 관리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그룹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해외시장서 수익성을 강화한다. 특히 신남방 핵심 지역인 베트남 공략을 본격화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이자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지분 15%를 20조2951억302만9849동(한화 약 1조 원)에 인수했다. 올 2분기부터는 배당 등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3월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신설, 기존 핵심 산업의 내실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성장 사업을 발굴해 수익창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에 신규 편입된 자회사들(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경영 성과가 이번 분기부터 본격 반영된다. 향후 자회사들 간 시너지 창출로 수익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NH농협금융은 김광수 회장 주도하에 수지보전, 리스크관리, 현안 대응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 개의 분과를 꾸린 뒤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내실 있는 비상경영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경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은행권 '키코 분쟁조정안' 또 거부

신한·하나·대구銀, 코로나 등 이유 5번째 연장 요청할 듯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시한 마감일인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벌써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과 관련한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라임사태, 코로나19 같은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키코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얼마 전 이사회 멤버를 3명이나 교체했다. 키코배상안과 관련해 이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단서도 달았다. 업계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해 계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키코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

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하나·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수용 거부를 밝힌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배상을 진두지휘했던 윤석현 금감원장도 한 발짝 발을 빼는 모양새다. 윤 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배상)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은행 측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은행에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금감원이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서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국책銀 "대주주·투자자도 동참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자금 수혈 '동상이몽'

시중銀 "최악의 경우 부실 보전 불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체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 전례 없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조와 대주주, 시중은행, 투자자까지 조금씩 이해하면서 동참해달라."

지난달 24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3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결정한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예로 들어 이같이 얘기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 결정이 자신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책은행이 지원한 자금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업종 특성상 시장 차입이 많아 국책은행 지원만으로는 회생이 어렵다. 대한항공은 ABS와 차입금, 회사채 등을 포함해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3조 8000억 원에 이른다. 그중 1년 내 시중은행에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만 5000억 원 규모다. 이들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애초에 무게를 감당했던 국책은행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국책은행은 설립 및 운영 논리상 자체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억지로 돈이 주입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의 참여를 독려한다. 민간금융사가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금융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긍정적



국책銀 "지원금 무용지물 우려 이해관계자 등 시장 협력 절실"

시중銀 "자금 지원 이후가 문제 우리는 스스로 충당금 쌓아야"

신호들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이동걸 회장이 나서서 '다른 채권단'의 동참을 언급한 것도 여기에 있다.

비슷한 방식 중 하나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자금 지원이다. 산은은 제주항공에 인수자금을 지원하되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방식은 다수의 은행이 참여해 공동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논리가 작동한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원은 사실상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시장 쪽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한 시중은

행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어찌하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원 이후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건전성을 떠안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도 있지만,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다른 한 관계자는 "산은은 짊어지고 생각하겠지만, 시중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시중은행이 감당해야 할 금액도 상당하다.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1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쓰이는 밀전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감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민간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보인다. 대출 만기연장은 고사하고 제주항공 인수금융 신디케이트론에 시중은행 참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우선 시중은행도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 우산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든 따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채권단 결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중은행채권단은 대한항공에 제공된 대출의 만기연장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jinsan@

산은, 40兆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단 발족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산은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산은 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기금 설립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4일자로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은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부 등 기금 설립·운영,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회계, IT 등 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 규모의 정

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은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 내 주요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경영 정상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은행, 재택·분산근무 단계적 완화... 채용도 '기지개'

금융권 업무 정상화 시동

금융권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일상으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재택·분산 근무를 일부 완화하고, 채용 절차도 재개하고 있다.

◇재택근무 중단하고 콜센터 정상 운영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대체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시차 출퇴근제도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 역시 정부 지침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 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초 재택근무와 분산 근무를 완화했다. 재택근무를 의무적(부서 인원의 20%)에서 자율적으로 돌리고, 분산근무는 핵심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도 근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KB손해보험은 6일부터 분산 근무를 해제한다. 단 임신부는 제외되며, 본부별 의견을 우선한다. 지난달 초 재택근무를 해제한 DB손해보험도 이날부터 분

금융권 채용 일정
※출처: 각사

- NH농협은행**
 - 규모: 상반기 280명 공채
 - 일정 및 내용: 13일부터 면접 순차 진행
- IBK기업은행**
 - 규모: 상반기 250명 공채
 - 일정 및 내용: 11일까지 지원서 접수
- 산업은행**
 - 규모: 상반기 50명 공채
 - 일정 및 내용: 16일 필기시험 예정
- 우리은행**
 - 규모: 상반기 수시 채용(하반기 공채 채용 예정)
 - 일정 및 내용: 디지털·IT·B·자급 분야
- 금융보안원**
 - 규모: 상반기 공채 진행 예정
 - 일정 및 내용: 7일부터 지원서 접수
- 예금보험공사**
 - 규모: 인턴 채용 공고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
 - 규모: 신입직원 채용 공고 예정

농협銀, 시차출퇴근제 중단 검토
신한銀, 재택근무 '의무 → 자율'
DB손보, 콜센터 순환근무 종료
기업銀, 11일까지 채용 원서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이달 공고 예정

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현업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6일부터 분산 근무와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은 등교 개학 이후에 재검토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코로나19' 동향을 지켜보면서 근무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순환 근무를 했던 콜센터도 정상 운영된다. 우선 생

활 방역 전환에 맞춰 DB손보 콜센터는 6일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말 콜센터 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3부제 근무를 해제했다.

◇은행권, 수시 채용 중심으로 전환 = 금융권 채용 절차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우선 NH농협은행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3~15일 면접을 진행한다. 2월 필기시험을 치른 지 약 3개월 만이다.

다만 감염병 위기 단계는 아직 '심각'임을 고려해 지역별로 날짜를 배분한다. 서

울의 경우 13일과 1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4차례 면접 진행을 진행했다.

국책은행도 최근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상반기 250명 채용을 목표로 지난달 27일부터 신입 직원 지원서를 받고 있다. 마감은 11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실기 면접을 거쳐 7~8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50명을 선발하는 산업은행은 현재 지원 신청서를 받았다. 서류 심사 후 16일 필기시험과 다음달 면접 등을 거쳐 7월 입행시킬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공채를 하반기로 미뤘다. 대신 이달 중순부터 △디지털 △정보기술(IT) △투자은행(IB) △자금 등 4개 전문 영역에서 수시 채용을 한다. 이외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신입 행원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내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미정이나 7월 입사가 목표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인턴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고, 금융보안원은 7~15일에 2020년도 신입직원 입사 지원을 받는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은행권 '가정의 달' 이색 이벤트

적금·골드바 등 언택트 효도선물 '모바일 기프팅' 고객 경품 드려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시간은 흘러 가정의 달 5월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가정의 달 풍경은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공동으로 직장인 259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의 달 가족 모임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코로나 19 때문에 5월 가족 모임 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직장인 67.3%가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바뀐 것이 있다'고 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당분간 만나지 않고 각자 보내기로 했다'(52.8%)고 답했다. '예년에 비해 가족모임 횟수를 줄여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응답도 42.4%였다. '여행을 하거나 외식을 하는 대신 직접 요리하거나 배달음식을 먹는 등 집안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응답도 31.2%로 비교적 높았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금융상품 이벤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상품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쏠 기프팅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쏠 기프팅 서비스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만 입력하고 간편하게 적금, 환전, 골드바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달 적금상품을 선물한 고객 선착순 4만 명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BBQ치킨, 보드게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선물 조르기'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까지 모바일 플랫폼인 NH스마트뱅킹에서 'NH스마트뱅킹은 감사를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 앱으로 계

금융권 가정의 달 이색 이벤트

- 신한은행**
쏠 기프팅 서비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적금, 환전, 골드바 선물 가능
- NH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
NH스마트뱅킹은 감사를 신고 이벤트: 감사 인사 담은 계좌이체 고객 550명 추첨 선물 제공
- IBK기업은행**
2020 그대의 오월을 응원하오: IBK D-Day 통장 가입 등 고객 600명에 1만~2만 원 상당의 모바일쿠폰 제공
- 우리은행**
우리가족 투게더 이벤트: 신규고객 대상 300명에 5만원 백화점 상품권 지급

좌이체 시 받는 계좌 표기란에 '감사' 또는 '그대'를 입력 후, 1만 원 이상 이체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550명을 추첨해 농협 한삼인 홍삼 원기 진액세트(50명), 이디야정말고마워세트 모바일쿠폰(500명)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2020 그대의 오월을 응원하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아이원뱅크)'에서 1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IBK D-Day통장(단기중금채)'을 가입한 고객이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날, 18일 성년의날, 21일 부부의날과 이벤트 종료일인 31일에 각 100명씩을 추첨해 총 600명에게 1만~2만 원 상당의 모바일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우리가족 투게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거래가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연령대별 입출금 상품을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응모된다. 또 응모 고객 중 300명을 뽑아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박은경 기자 pepe@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은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 생명보험 나의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	--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기간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로 지급유기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장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손해보험문의 심의팀 186490(2019.07.08) *주식투자 상담팀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문의 심의팀 2019-021950 (2019-07-09) *주식투자 상담팀 명동로 228 KB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1분기 추정치>

6000억 적자 항공업계 “2분기엔 1조 손실”

국적사 다음 주 줄줄이 실적 발표
코로나로 국제선 90% 이상 중단
황금연휴 특수 국내선에 국한
“3분기 후반 돼야 항공수요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으로 1분기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국내 항공업계의 2분기 실적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미국 4대 항공주를 모두 팔아치워 전 세계 항공업계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분기에만 무려 6000억 원에 육박한 손실을 낼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대한항공은 1700억 원대에 달하는 영업손실(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기록할 것으로 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이 황금연휴 전날인 4월 29일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상된다. 지난해 3분기 '보이콧 재팬' 물결에도 불구하고 국적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지만 결국 코로나19에 무너진 것이다.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80%에 달하는 비행기가 멈춰섰고, 국제선의 90% 이상 운항이 중단돼 여객 매출은 1년 만에 3

분의 1가량이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멈춰선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면서 화물 운송량은 다소 늘었다.

15일 1분기 성적을 발표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역시 1600억 원대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줄줄이 적자 행렬이 예상된다. 이르면 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항공은 6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며, 다음 주중으로 실적발표가 예상되는 진에어 역시 497억 원의 적자가 전망된다.

티웨이항공은 15일, 그 외 LCC들도 다음 주 1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티웨이항공은 영업손실 37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400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부산과 비상장 LCC인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손실액까지 더하면 국적사의 1분기 손실 규모는 5500억~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황금연휴를 맞아 '반짝 특수'를 누리기는 했으나 국내선으로 국한돼 있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8개 항공사 모

두 1분기 대비 적자폭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항공업계 손실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3분기 후반에 들어서야 항공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까지는 국제선 노선의 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3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성수기 특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칼튼 보잉 CEO는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핏도 화상회의로 진행된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항공산업 미래가 매우 불확실해 3~4년 이후에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비행기를 많이 탈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4월에만 65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대부분은 항공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완료... “정부가 답할 차례”

금융위기 후 최대 규모 적자
자금줄 말라 대출 확대 절실
“보유 부동산 가치 1조 넘어
담보 재설정 적극 나서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아침, 올해 1월 초 쌍용자동차에 복직한 뒤 '무기 휴직'에 나섰던 해고 노동자 35명이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앞으로 출근했다. 쌍용차가 10년 넘게 끌어온 '해고 노동자 사태'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쌍용차가 경영난 속에서도 해고 노동자 복직의 중지부를 찍은 것은 정부 노동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대응적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 복직은 해결됐지만 정작 회사 경영은 백전간두에 서 있다.

쌍용차는 2017년부터 내리 3년간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만 2819억 원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934억 원) 이후 최대 규모 적자였다.

쌍용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지난해 신규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독자 생존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신차 개발을 지속해야 20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는 쌍용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해고 노동자 복직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 정부 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자들이 4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교유장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장 7월까지 쌍용차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만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운영자금을 위한 담보대출 연장은 물론 '담보 재설정'을 통한 대출 규모 확대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쌍용차에 대한 담보 규모는 2010년대 초 설정한 1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쌍용차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시 칠괴동 인근에 본격적인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채권은행이 전 담보 가치에 대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지엠(GM)의 경우 산은이 2대 주주인 만큼 8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내놓을 명분이 뚜렷했으나 쌍용차는 보유 지분이 없는, 단순한 채권은행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2009년 이미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노동시장에서도 쌍용차 노사가 지닌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한국지엠처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아닌, 담보 재설정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대출 확대만 추진해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동성 위기 두산, 신사업 R&D 강화

두산퓨얼셀·로보틱스 인재 확보
‘혁신’ 기술로 수익성 창출 의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알짜 자산 매각도 감내해야 하는 두산그룹이 이와는 별개로 신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인재들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어려워진 그룹 상황을 보다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이를 통한 수익성 창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연료전지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계열사인 두산퓨얼셀은 파워BU 부문에서 연료전지 설계 및 평가, 분석 등이 가능한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개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연료전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도 뽑고 있다.

연료전지 사업은 두산그룹이 2014년 미국 클리어에너지파워(CEP)를 인수한 이후 꾸준히 성장시켜 온 신사업 중 하나로 두산퓨얼셀은 지난해 4분기 195억 원의 영

업이익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43.3% 성장했다. 또 2년 연속 수주액 1조 원대를 달성했다.

또 다른 그룹의 미래 동력인 두산로보틱스 역시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개발 인력을 찾고 있다. 운영체제(RTOS)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고 로봇 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설계가 가능한 전문가들이 대상이다.

2015년 출범한 두산로보틱스는 그룹의 신성장동력 및 핵심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역사는 짧다. 하지만 출범 2년 만인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협동로봇 출시에 성공하는 등 성장속도는 빠르다.

이처럼 두산그룹은 우선적으로 신사업을 큰 축으로 삼고 미래 혁신기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비롯해 흔들리는 그룹 전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재편에도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1구 모델 출시

삼성전자는 6일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The Plate)’ 1구 모델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0월 2구 모델로 첫선을 보인 더 플레이트는 별도 설치가 필요 없고 이동이 간편해 출시 후 현재까지 월평균 판매량이 40%가량 꾸준히 증가해 왔다.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협소한 주방 공간이나 혼밥을 즐기는

1인 가구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화력을 1~10단계로 섬세하게 조절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다이얼을 갖췄다. 잔열 경고 표시, 과열 방지, 어린이 안전장치와 같은 유용한 안전 기능도 대거 적용됐다. 삼성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25만 원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 벨벳 반값에 드려요” 단말기 2년 후 반납 조건

LG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LG 벨벳’ 구매 고객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 혜택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구매해 2개월간 사용한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의 최대 50%를 할인 받는 프로그램이다.

LG 벨벳을 구매하고 월 8만 원의 5G 요

금을 사용하는 고객을 예로 들면, 단말기 가격(89만 9800원)의 최대 50%인 44만 9900원을 할인받는다. 또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른 선택정할인(25%)을 더하면, 48만 원 할인받게 된다.

LG전자는 8일부터 14일까지 LG 벨벳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예약판매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캐릭터 액세서리팩, 스마트폰용 짐벌 중 하나를 제공한다. LG 벨벳은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물방울 카메라’ 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지금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반드시 잘 극복하리란 믿음으로
오늘의 모두를 응원합니다



“IBK 전국 영업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금융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해내리대출I)
-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 감면

가전업계 '캐시백' 앞세워 '보상소비' 공략 나섰다

'으뜸 효율가전' 10% 환급 이어 LG, 에어컨 최대 70만원 캐시백
 동시 구매하면 250만원 혜택도 삼성, 사은품·할인 쿠폰 이벤트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가전업계가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TV를 살펴보는 소비자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전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동제한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는 '보상 소비'가 시작되면서 가전제품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닷컴은 이달 말까지 비스포크 냉장고 신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할인 쿠폰, 신용카드 결제 할인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냉장고, 인덕션 더 플레이트 등을 증정한다.

LG전자는 5월 혼수기·이사철을 맞아 '2020 올 뉴 웨딩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트롬 건조기, 트롬 스타일러 등 행사 모델을 동시 구매할 경우 최대 2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LG 휘센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맞아 휘센 에어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 캐시백 지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품목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말부터 연말까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10개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개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10가지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매출은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컨은 200% 가까이 매출이 폭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를 예측하는 APEC기후센터가 최근 올해 6~8월 동아시아 전역이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보하자,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에어컨을 준비하려는 소비

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트북과 모니터 등도 온라인 개학을 맞아 인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30일 진행된 '삼성 인강 TV 특별전' 행사를 이달까지 연장했다. 행사 제품은 QLED 4K 5가지 모델로 구매 제품에 따라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키보드, 마우스 등을 제공한다. LG전자도 전국 베스트샵 매장에서 '온라인 수업, 올레드로 크게 보자' 행사를 하고 있다. LG 올레드 AI 싱큐 구매 고객에게 카카오프렌즈 무선 키보드를 준다. 어버이날 등을 맞아 건강·미용 가전제품

도 인기다. 안마의자, 손마사지기, 마스크형 피부관리기 등의 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민감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을 위해 더 섬세한 클렌징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를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건조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 수요도 꾸준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균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이 소비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의류케어 가전제품 판매량은 1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성 그랑데 AI 건조기·세탁기는 1분기 누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60% 가까이 증가했다. 외출 후 오염된 옷을 관리할 수 있는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도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3월 초 출시한 트롬 건조기 스팀 싱큐가 차별화된 스팀 기능으로 전체 건조기 판매량 절반을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꼭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씁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중급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택배 물량 1위는 '식품류'

CJ대한통운 작년치 22% 달해 '기생충' 개봉 후 너구리 393% ↑

지난해 5월 영화 '기생충' 개봉 후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화제가 되면서 CJ대한통운의 라면 물량이 1년 만에 40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식품업계의 물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5일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집계한 택배서비스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택배로 오간 제품은 식품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어 패션류 20%, 생활·건강용품 18%, 화장품·미용 제품 11%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기생충 개봉 이후 짜장라면의 월평균 물량은 207% 증가했으며, 너구리라면은 무려 393% 폭증했다. 라면 전체 물량 중 두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화 개봉 전 8%, 개봉 후 19%로 2배 이상 뛰었다. 또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군 '흑당'과 '마라'의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각각 186배, 7배 증가했다.

식품 물량 급증과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성향에 힘입어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움직인 택배상자는 약 13억 2000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2019년 기준 4538만명) 1명당 연간 29개 이상의 택배를 받은 셈이다. 상자(1개 35cm)를 한 줄로 늘어놓을 경우 서울과 부산을 569회 왕복, 지구 둘레(4만km)를 11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47.2%였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매년 택배 빅데이터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주요한 사회적 현상에 맞춰 비정기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다. 일상 생활 리포트는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두산인프라코어, 중서 대형굴착기 20대 수주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굴착기 판매에 연이어 성공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북부 내이멍구, 동부 산시 지역에서 총 20대의 대형 굴착기를 잇따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중순 칭하이 하이시 일대에서 광산 채굴용 장비 임대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80톤 굴착기(DX800LC-9C·사진) 5대와 50톤 굴착기(DX520LC-9C) 1대 등 대형 굴착기 총 6대를 판매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우수한 연비와 효율적인 작업 성능을 갖춘 제품, 현지 대리상의 신속한 서비스 대응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럽과 일본의 경쟁사를 제쳤다.

내이멍구에서도 같은 달 광산 및 인프라 공사용 장비 임대업체가 80톤 굴착기를 3대 구매했다. 이보다 앞서 산시에서는 건설업 고객사가 49톤 굴착기(DX490LC-9C) 6대, 45톤 굴착기(DX450LC-9C) 2대, 36톤 굴착기(DX360LC-9C) 3대 등 총 11대를 구매했다.

중국 건설기계 시장은 1~2월 침체됐으나, 3월부터 반등하며 빠르게 회복 중이다. 3월 중국 굴착기 시장 규모는 4만6201대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방사광가속기’ 부지 8일 발표... 지자체, 유치 총력전

빛 이용 물체 구조 분석... 의약·방산·반도체 등 활용
1조 투입... 6.7조 생산유발·13.7만명 고용창출 효과
강원 춘천·경북 포항·전남 나주·충북 청주 ‘4파전’

1조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종 선정 부지가 8일 발표된다. 무려 6조70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13만7000여 명의 고용 창출 혜택을 어느 지역이 받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유치 경쟁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한 달간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에 나서며 사활을 건 만큼 부지 확정에 따른 후폭풍과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선정평가위원회가 6~7일 이틀간 최종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 지

체는 강원도 춘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나주시, 충북 청주시 등 4곳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을 합해 약 1조 원 규모의 건설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전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지난 달 8일 유치의향을 제출한 이후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연일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필두로 온라인 홍보전에 나섰다. 저마다 자신의 지자체가 최적지라며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입지 타당성을 과시했다. 특히 해당 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상도.

역은 물론 지자체가 포함된 시·도 광역단체가 지원자격을 하며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열의를 보였다.

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심의를 마치고 늦어도 8일께 과기정통부를 통해 최종 부지를 공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해 14일까지 선정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이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 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방사광가속기는 양성자나 전자, 이온 등 전기를 띤 입자들을 빛의 속도(30만km/초)에 가깝게 가속할 때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반응이나 빛을 이용해 물체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설비다. 예전에는 물리학 기초연구에 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신약개발, 의학, 방위산업, 나노 소재 등 다양한 첨단산업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일본은 방사광가속기를 7기나 보유해 이 분야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역시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같은 유명 신약을 개발했다. 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기판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미세한 세포와 단백질까지 구조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 유럽, 일본, 대만 등도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스텍(옛 포항공대)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운영하는 3세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지만 삼성과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들이 요청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통해 활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국비 80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갖추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신약 개발과 의학 등 기초과학은 물론 응용과학과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입지 선정에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VR·AR 활용 ‘실감교육 체험학교’ 생긴다

과기부, 17개교 모집... VR 디바이스·태블릿 PC 등 지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실감 체험학교’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AR 등 실감기술이 적용된 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실감교육 체험학교’를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을 위한 대상 학교 신청은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중학교와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가 참가 대상이다.

VR·AR를 활용한 실감교육은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여 기존 문자·이미지 중심의 교과서 대비 교육효과를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메릴랜드대 조사에 따르면 기존 PC 기반 교육 대비 VR 교육 시 학생들의 기억 정확도

가 8.8%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VR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육의 시·공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AR를 활용해 학습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쉽고 빠르게 증강·제공,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실감교육의 높은 가능성에 주목,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해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로체험 15종, 교과연계 17종 총 32종의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 32종의 콘텐츠는 홀로그램 전문가, 무인자동차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업군에 대한 진로체험 콘텐츠와 과학, 사회·역사, 미술 등 중등 교과연계 콘텐츠로 구성된다.

선정된 실감교육 체험학교에는 실감교육을 위한 VR 디바이스, 태블릿 PC 등이 지원되고, 학교 자유학기 과정의 자율동아리 활동과 연계해 실감교육 콘텐츠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 대비 재미와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VR·AR 실감교육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실감교육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VR·AR 실감교육이 확대되고, 미래 실감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배우 신민아를 모델로 광고 중인 세라젼 안마의자 신제품 ‘파우제’.

안마의자 ‘특수 잡기’ 경쟁

‘가정의 달’ 맞아 신제품 출시·할인행사 이어져

안마의자 업계가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체들은 각종 할인 이벤트와 새 광고 모델을 선보이며 5월 ‘가정의 달’ 특수 잡기에 나섰다.

5월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가 가정의 달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업체들은 늘어난 수요를 잡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분주하다. 기존 안마의자가 ‘어르신’ 선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고모델을 발탁해 타깃 층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는 새 모델 BTS(방탄소년단)와 이달 20일까지 프로모션을 한다. 지난 달 바디프랜드는 BTS를 새 광고모델로 발탁하며 총 6편의 광고를 선보였다. BTS와 함께하는 가족 건강 캠페인 ‘BTS in BODYFRIEND, 가족을 지켜라’ 프로모션은 바디프랜드 인기 안마의자 모델인 블랙에디션 ‘팬텀II 다이아몬드 블랙’, ‘텍스엘 2020’을 각각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또는 구매 시 BTS 전체 멤버의 사인이 들어간 브로마이드와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안마의자가 어린이날 선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전주부

터 ‘하이키’, ‘허그케어’ 등 어린이날 선물용 안마의자에 대한 문의가 늘며 전년 동기 대비 20~30%, 평월과 비교해서는 2~3배 이상 문의가 증가했다.

세라젼은 지난달 배우 신민아를 광고모델로 발탁하고 안마의자 ‘파우제(PAUSE)’를 출시했다. 세라젼은 새 광고모델 효과를 주 타깃층인 2040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품 ‘파우제’는 가구형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요소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세라젼에 따르면 파우제는 최고급 천연 가죽과 패브릭 소재를 적용했고, 무게도 36.8kg으로 기존의 무거운 안마의자와 차별화했다. 세라젼은 이달 말까지 척추 의료 가전 세라젼 V4와 안마의자 파우제를 동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휴테크산업은 온라인 수요를 잡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제품 안마의자 2종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행사 대상 제품은 ‘르네’, ‘킴포어’ 안마의자이며 G마켓과 옥션, 휴테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한 고객 전원에게 안마의자 전용 러그를 증정하고, 포토상품평을 작성한 고객 중 제품별 각 10명을 추첨해 발 마사지를 선물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LG유플러스, 5G 단독모드 상용망 테스트 완료

아리아텍·텔코웨어 등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장비까지 연동 성공

LG유플러스는 5G 단독모드(Standalone, SA) 표준을 기반으로 상용망에서 5G 서비스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5G 네트워크는 LTE망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5G 비단독모드(Non-Standalone, NSA) 방식이다. 5G 단독모드가 상용화되면 서비스별 최적의 품질 보장 제공, 통신 지연 시간 최소화, 단말 전력 소모 개선 등이 가능해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차세대 서비스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서울지역 5G 상용망의 기지국 장비와 신호 패킷 처리 코어장비의



연동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인 아리아텍·텔코웨어와 LG유플러스가 공동 개발한 5G 기지국 정보 관리 장비 및 네트

워크슬라이싱 관련 장비까지 연동하는 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5G SA 표준 기반의 기지국 인증, 데이터 송수신, 기지국 장비 지역 간 이동 등 5G SA 상용을 위한 필수 검증 항목에 대해 상용망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박송철 LG유플러스 NW기술운영그룹장은 “5G 단독 모드가 상용화되면 일반 고객은 물론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최적의 품질을 보장해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상용망에서 검증한 5G 단독모드 기술을 향상시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용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설립·운영 전문가 모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모집한다.

5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 전반사항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규모는 20명 내외로,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자격 요건은 협동조합(관련 기관) 재직 경험자, 경영/기술지도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인력 등으로 한 가지 이상 요건에 해

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단 활동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협동조합 설립준비부터 인가 이후까지 제반 사항, 운영 관련 법률규정, 세무회계 및 운영예에 대한 컨설팅 등이다.

지원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컨설턴트)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협업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유리천장’ 여전한 10대 제약사... 女직원 20%대 그쳐

고용부 조사 기관과 10%P差
광동제약 18.3%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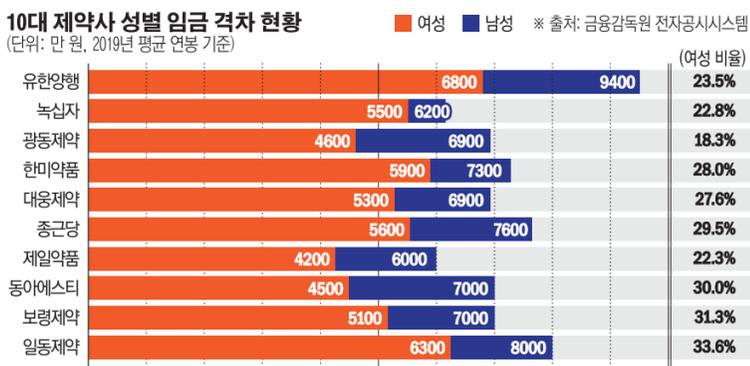
성별 간 연봉 차이 1890만 원
유한양행 2600만 원 ‘최대’

국내 제약업계가 해마다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성 직원 비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균 연봉이 상승한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이투데이가 5일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제약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규모는 1만6312명으로 전년(1만5925명) 대비 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379명으로 26.8% 증가해 전년(26.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민간기업·공공기관 2064곳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 38.4%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광동제약이다. 999명의 임직원 가운데 여성이 183명(18.3%)이었다. 10대 제약사가운데 여성 고용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는 광동제약이 유일했다. 이어 제일약품(22.3%), GC녹십자(22.8%), 유한양행(23.5%), 대웅제약(27.6%), 한미약품(28.0%), 종근당(29.55) 순이었다.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일동제약(33.6%)이었고, 보령제약(31.3%), 동아에스티(30.0%) 등도 30%대 여성 고용 비율을 보였다.



일동제약은 지난해(32.5%)에 이어 올해도 10대 제약사 중 가장 많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직원의 근속연수는 11.5년으로 10대 제약사 중 유일하게 남성(10.6년)보다 길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급여를 포함한 임직원 복지가 뛰어난 점과 기업문화가 직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 제약사의 성별 임금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남성 평균연봉이 7230만 원인데 비해 여성의 평균연봉은 5380만 원이었다. 평균 임금격차는 1890만 원으로 전년 1670만 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회사는 업계 1위인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은 남성 직원의 평균연봉이 9400만 원, 여성 직원의 평균연봉이 6800만 원이었다. 다만, 유한양행 여성 직원의 평균연봉은 조사 대상 제약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아에스티는 남성 직원에게 평균 7000만 원, 여성 직원에게 평균 4500만 원을 지급해 2500만 원의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이어 광동제약이 2300만 원, 종근당이

2000만 원, 보령제약이 1900만 원, 제일약품이 1800만 원, 일동제약이 1700만 원, 대웅제약이 1600만 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제약사는 GC녹십자다. GC녹십자는 지난해 700만 원 수준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임금 격차가 증가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일동제약 7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격차를 더 벌였다.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전통 제약사들이 일반적으로 남성을 선호하는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성별 고용 규모가 차이 나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아져 임금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강화하면서 연구직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케어푸드 후발주자들 ‘B2C 속도전’

초고령 사회 주목하는 식품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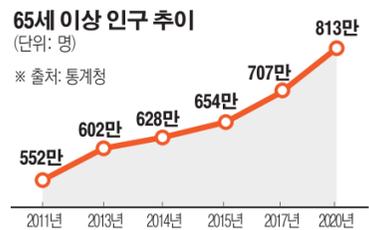
▶ 1면서 계속

최근 들어 케어푸드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B2C 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그린푸드다.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3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Greeting)’을 론칭하고 B2C 판매에 힘쓰고 있다. ‘그리팅’은 일반적인 한 끼 식사보다 저당식이 나 칼로리 밸런스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건강식단 브랜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전용 온라인몰인 ‘그리팅몰’ 오픈을 시작으로 B2C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팅몰은 소비자들이 건강식단을 정기구독할 수 있는 ‘케어식단’과 간편건강식·반찬·건강 주스·소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마켓’ 등 두 가지 코너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박주연 현대그린푸드 그리팅사업담당 상무는 “‘그리팅’은 평소에도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푸드(종합건강식)’라고 볼 수 있다”며 “조리한 다음 날 새벽에 집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케어식단’은 정기 구독 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메뉴와 배송일, 배송 방법(일반택배·새벽배송)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하루에 몇 끼를 먹을지, 몇 주간 이용할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도 올해 1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EASY BALANCE)’를 론칭하고 연하식 5종을 출시했다. 신세계푸드가 선보이는 ‘연하식’은 음식을 삼키는 것이 곤란한 이들을 위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연하식’과 구별된다.

신세계푸드는 “연하식에 이어 연하식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8년 말 일본 영양치료 기업 뉴트리, 케어푸드 소재를 공급하는 한국미쓰이물산과 손잡고 케어푸드 제품을 선보였고, 1년여 만에 전문 브랜드를 출시했다. 신세계푸드는 이지밸런스 브랜드로 추가 제품을 개발해 B2C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서 지역화폐 쓰면 ‘할인 더하기 할인’

긴급재난지원금 12兆 육박
연계 지역상품권 집객 효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편의점들이 지역화폐 사용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편의점들이 지역화폐 프로모션에 나서는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로페이 등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조 원에 육박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등 지역자치단체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위주인 편의점과 외식업종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제로페이 등 연계 모바일 지



역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에 돌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씨유)는 5월 한 달간 제로페이와 코나카드 지역화폐 사용 고객들에게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 특별 할인행사를 펼친다. 지역화폐 5% 할인에 SKT 통신사 10% 할인까지 적용하면 최대 15%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15일까지 서울 지역 전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구매 시 ‘오뚜기밥 210g’ 무료 교환쿠폰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제로페이를 통한 일반 계좌 결제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연계 서울사랑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24도 제로페이로 도시락과 주

먹밥, 샌드위치, 김밥 등을 결제하면 캐시백 20%를 제공하고 코나아이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민생 컵라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집객 효과 역시 쏠쏠하다. CU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 점포의 제로페이 이용건수는 전월 대비 6배가량 치솟았다. 세븐일레븐 역시 3월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제로페이 론칭 첫 달 편의점 사용 금액이 전체 매출의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과다.

편의점 관계자는 “지난달 제로페이의 편의점 사용 성과가 좋았다”면서 “정부의 재난긴급생활비 역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나만의 패브릭 제품 만들어요 롯데백화점이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에서 재봉(소잉) 제품을 판매하고 재봉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잉팩토리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5일 밝혔다. 부라더미싱이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부라더미싱 제품 및 원단, 부자재, 재봉 관련 서적을 만날 수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이마트 “국산 생새우 사계절 맛보세요”

양식 성공... 연중 판매 개시

이마트가 가을에만 먹을 수 있던 ‘국산 생새우’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7일부터 일주일간 국내에서 양식한 ‘잘기른 국산 생새우(흰다리새우·12마리·각 20~25g 내외)’를 9600원에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통상 8~10월 외에는 국내에서 새우가 잡히지 않아 수입 냉동새우를 먹어야 했지만, 최근 양식에 성공하면서 올해부터는 연중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마트는 국산 생새우를 소비자에게 연중 선보이고자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해 새우를 양식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플락 양식 협회사를 발굴해 협업체다. 이마트가 국산 생새우를 연중 판매 운영



하기로 한 이유는 새우가 지난 3년 동안 이마트 수산물 매출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품목이며, 그중에서도 국산 생새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수정 이마트 새우바이어는 “새우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선호도가 높은 핵심 수산물”이라며, “국산 생새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백 ‘어버이날 선물 상품전’

전점서 건강식품·패션 특가전

현대백화점은 6일부터 10일까지 압구정 본점·무역센터점 등 전국 15개 전점에서 건강·남성·여성 등 상품군별로 ‘어버이날 선물상품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판교점은 8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건강식품 선물상품전’을 진행한

다. 10만 원·20만 원 구매 고객에게 1만 원·2만 원 현대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판교점은 7일부터 10일까지 10층 토포스홀에서 ‘남성 패션 특가전’을 열어 남성 정장과 캐주얼 의류를 최초판매가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선보인다.

무역센터점은 지하 1층 대형시장에서

‘손정완 클리어런스 세일’을 열어 브랜드 이월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인하된 가격에 판매한다. 목동점은 7층 토포스홀에서 한심·LF·바바패션 등 여성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여성패션 이월상품전’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2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5%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현대백화점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원유ETN 투자자 “한 달 새 -80%”... 집단소송 예고

투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에 “상당 직원 상품 이해 없이 설명” 증권사 불완전판매 논란도 불거져 일부 투자자들 검찰 수사 의뢰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증가
(단위: 원, 5일(직전 거래일 증가))

	4월 6일	5월 5일	증감률
QV	2,460	500	-79.67%
미래에셋	4,700	1,270	-72.98%
삼성	3,645	835	-77.09%
신한	2,580	310	-87.98%

* 출처: 한국거래소

과리율 확대로 큰 손실을 본 일부 원유 ETN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일부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레버리지 WTI(서부텍사스산) 원유선물 ETN(상장지수증권)이 평균 79.43% 급

락했다. 이날 기준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과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각각 3645원, 2580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77.09%, 87.98% 떨어졌다. ‘QV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79.67%), ‘미래에셋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72.98%)도 크게 하락했다. 가격 급락으로 원금 전액 손실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과리율의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거래정지가 이어지면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투매장이 이어져 하한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예측할 수 없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손실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증권사에 대한 비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발행사들이 유동성공급자

(LP) 역할을 소홀히 해 가격 조정에 실패했다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선물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3월 중순 증권사에 해당 상품에 대해 문의했다”며 “현금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거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HTS 화면에서 간단한 위험서약에 동의하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손해가 나도 원금까지만 손해를 본다는 것, 세금이 붙는다는 것 등에 대해 안내받았지만, 과리율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상당 직원도 과리율과 ETN에 대한 이해 없이 설명한 것으로 보

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예고하면서 원유 ETN을 둘러싼 소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는 한편 검찰 수사 의뢰,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원유 ETN의 과리율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ETN 레버리지는 60%의 가격 제한 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공급자(LP)가 적절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리율 확대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ELS ‘고수익’ 상품 쏟아져도... 청약률 ‘저조’ ‘고공행진’ 금값... “사상 최고치 찍는다”

연 10% 상품 잇따라 출시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원금 손실 우려 위험자산 이탈 가능성 더 높아져



국내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 10%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ELS 상품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고수익 상품 출시에도 실제 청약률은 저조하다. 고객의 원금 손실 가능성, 증권사 자체 헤지 손실 등이 부각되면서 ELS 자금 유입이 끊긴 모양새다.

증권사들은 최근 기대수익률 연 10%를 웃도는 ELS 상품을 앞다퉀 내놓고 있다. 7일까지 청약 가능한 삼성증권 제24413회차 ELS 상품은 기대수익률 11.4%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홍콩 H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S&P5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닛케이225지수, 홍콩 H지수, S&P5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성증권 제24416회차 상품 역시 연 수익률 10.6% 추구하는 상품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도 연 10%대 기대수익률의 ELS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종목,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통상 ELS는 시중 은행금리보다 기대수익률이 높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객 원금 손실이 속출하자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낮은 청약 경쟁률은 위축된 투자심리를 뒷받침한다. 4일 청약을 진행한 삼성증권 제24401호 ELS는 경쟁률 1.36%를 기록했다. 공모 수량은 200만 구좌였지만, 2만

7300구좌가 청약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제24403회, 24408회, 24412회 ELS의 경우, 청약률 0%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의 청약률 역시 저조하다.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높아서다. 8일까지 청약을 진행 중인 키움증권 제1340회 ELS는 디즈니, AMD 보통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예상수익률은 연 21.2%지만, 4일 기준 청약률 1.67%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4일 청약을 마감한 키움증권 제48회 뉴클로벨100조 ELS는 엔비디아,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해 최고 수익률 연 28%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지수보다 5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ELS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어떤 종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지수 기준 상품보다 위험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ljh@

올들어 12% 올라 1700달러 형성 증권가 “최대 2000달러 선 예상”

고공행진 중인 금값이 2011년 전고점을 넘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1700달러 선을 형성하며 2012년 말 유럽 재정 위기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증권가는 추후 2000달러 선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0.5달러(0.62%) 오른 171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초저금리·양적완화 환경이 갖춰지며 가격이 치솟았다. 올해 들어 약 12% 오른 금 가격은 1700달러 선을 지키며 7년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는 이미 한껏 오른 금값이 2011년 9월 6일 기록한 최고점(1911.60달러)

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00달러’, 삼성증권은 ‘1900달러 이상’, 대신증권은 ‘1850~1900달러’를 금값 전망치로 제시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유동성 확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증장기 금 가격 목표치는 온스당 2000달러”라며 “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금은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매력 있는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설명이 다. 금은 사실상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달러화 가치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금과 달러는 동반 강세였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달러화 가치는 강력한 양적완화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금 가격은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단기간 내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달러 강세 압력 약화는 추후 금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상장사

기업명	증자 규모	시가총액 대비 비율	구주주 청약일	증자 목적
에코마이스터	166억 원	96%	6월 23~24일	채무 상환 자금, 운영 자금 조달
진원생명과학	880억 원	35%	6월 25~26일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조달
에이프로젠제약	3080억 원	91%	6월 29~30일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조달
에이디테크놀로지	587억 원	35%	7월 6~7일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조달
포비스티앤씨	439억 원	101%	7월 8~9일	타법인 증권 인수 자금 조달

상장사 '통큰 유증' 베팅 지분 희석 우려 주가 '뚝'

진원생명과학·포비스티앤씨 등
시설 투자·타법인 인수 목적
증자 발표 후 주가 17% 이상 ↓
에이프로젠제약 "계열사 합병"
성장 가능성에 4거래일 연속 급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자금 수혈을 위해 주주 손을 빌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택한 기업도 늘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지분 희석 우려로 인해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다만 증자 목적과 사업 전망에 따라 전망은 갈리는 양상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이날까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결정한 기업(신규공시 기준)은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합쳐 총 28개사다.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을 직접 받았던 1·2월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이 각각 10개, 12개사 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최근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6개 기업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 반공모나 주주우선공모 방식을 택했다. 포비스티앤씨, 진원생명과학, 에코마이스터, 명문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에이디테크놀로지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유통 주식수를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자금 수혈을 결정했다. 목적은 시설 투자·타법인 인수·채무 상환 등 다양했다.

지난달 말 43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 포비스티앤씨는 7월 구주주 청약에 앞두고 있다. 유상증자 완료 시 발행되는 신주는 4330만 주로, 현재 유통주식 수(4326만 주)를 상회하는 큰 규모다. 회사 측은 발행 비용을 제외한 432억 원에 보유현금을 활용해 상장사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프로젠제약도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확충 자금, 파이프라인

인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3080억 원 규모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증자 주식 수는 2200만 주로, 현재 유통주식 수(2417만 주)의 91%를 넘는다. 지난해 7월 86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시 주주배정 증자 방식을 택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다. 증자 규모가 큰 만큼 주가 희석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비스티앤씨의 경우 증자 계획을 밝힌 다음 거래일인 4일 17% 가까이 떨어지며 1300원대로 내려앉았고, 에이프로젠제약도 지난달 20일 1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진원생명과학(-21.19%), 명문제약(-12.90%) 등도 증자 사실을 밝힌 당일이나 다음 거래일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다만 증자 목적과 재무 상황에 따라 투자자 반응은 갈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 발굴 등 기업 성장과 자금 사용처가 연관돼 있다면 주가가 차츰 회복됐지만, 채무 상환이나 단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우 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일례로 에이프로젠제약의 경우 증자 계획을 밝힌 이후 계열사인 에이프로젠·에이프로젠 H&G와 3사 합병을 발표하면서 4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등 주가가 발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증자를 통한 생산시설 투자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에이프로젠그룹의 향후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자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 지난달 14일 166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에코마이스터의 경우 증자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경고가 나올 정도로 회사의 실적 및 재무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코마이스터의 부채비율은 2017년 115%에서 2년 새 4배 넘게 뛰어 478% 수준이고, 유동비율 역시 67%에서 26%대로 낮아진 상태다. 회사는 조달 자금 대부분인 129억 원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금자산 늘어 사실상 '무차입' 경영 전환

상장사 재무 분석

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의 차입 규모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순차입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사실상 무차입 경영체제로 전환한 모습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의 순차입금비율은 2017년 42.8%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3.9%로 다시 한번 낮아졌다.

순차입금비율은 전체 차입금에서 현금자산을 뺀 뒤 자본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비율이 낮을수록 자금운용에서의 차입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의 순차입금은 3년간 963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단기 차입금과 전환사채 등 총차입금 규모가 줄어든 요인도 있지만, 현금흐름의 개선 속에 3년간 5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유입돼 현금자산의 규모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한글과컴퓨터 순차입금비율



작년 매출 3193억, 50% 증가
순차입금비율 3.9%로 낮아져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자산은 지난해 약 1326억 원으로 3년 새 약 96%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자본 역시 성장하면서 부채율은 2017년 142.62%에서 지난해 95.31%로 감소하며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지난해 총 부채는 318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2년간의 이자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4.3배에서 2.6배까지 떨어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장세인 만큼 차입 부담의

해소는 향후 자본운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3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2억 원으로 21.7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관계사들의 투자손실이 전보다 크게 줄면서 당기순이익은 105.69%나 성장한 2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44억 원, 90억 원으로 각각 161.5%, 382% 증가하며 성장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본사 오피스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지난해 부진했던 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가 신규 진출한 마스크사업 확대와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컴MDS도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높은 사업의 성장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며 "2분기엔 영업이익 156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bithumb 빚셈 빗셈 지수 (2020년 5월 5일 17:00, KST)

www.bithum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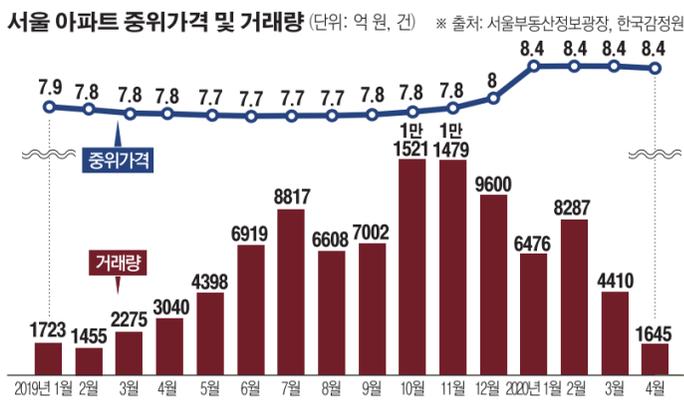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01,800	5,800 (2.0%▲)	모네로	74,950	550 (0.7%▲)
리플	267	8 (3.1%▲)	비트코인골드	12,010	450 (3.9%▲)
라이트코인	57,150	600 (1.1%▲)	이더리움 클래식	8,970	570 (6.8%▲)
대시	97,300	3,150 (3.3%▲)	퀀텀	1,909	61 (3.3%▲)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코로나에 정부 부동산 규제까지...매수심리 위축

'강남불패' 옛말...집값 1억~3억 '뚝'

철웅성과 같이 여겨지던 서울 강남 집값이 최근 심상치 않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21㎡형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27억9500만 원에서 지난달 말 25억2500만 원으로 2달 새 2억7000만 원(9.6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도 매매했던 30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1억 원이 빠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 역시 20억6000만 원에서 18억8500만 원으로 1억7500만 원(8.50%) 내렸다.



압구정 신현대 121㎡ 낙찰새 2.7억↓
서울 중위값 한달 만에 272만원 '뚝'
강남뚝 하락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
지난달 거래량도 작년 2월 이후 최저

영등포(-0.03%)·강서구(-0.01%) 등 3곳이다. 강남 집값 하락은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강남권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 때 많이 올랐던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거래시장도 얼어붙었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1459건으로 전월(4409건)에 비해 약 33% 선에 머물렀다. 이는 2019년 2월(1455건) 이후 최저 거래량이다. 전년 동월(2019년 4월) 3040건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

래량은 1월 6476건, 2월 8288건, 3월 4409건을 기록했으나 4월 들어 급감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3월 136건에서 4월엔 60건으로, 서초구는 114건에서 33건, 송파구는 146건에서 48건으로 줄었다. 송파구 잠실동 한 중개사는 "보유세 강화 회피 매물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유지 전망까지 겹치면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향후 1~2년간 시장이 급락한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간 9.1% 떨어졌다. 고점으로 되돌아오는 데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값이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1.8%가 빠졌고, 이를 만회하는 데 약 3년이 걸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서울 집값 하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격 우하향 추세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강남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평균 8억737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8억7686만 원에 비해 307만 원 내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은 4월 현재 8억36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3월 8억3937만 원 대비 272만 원 떨어진 수치다. 이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상승세가 10개월 만에 돌아선 것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세 하락을 이끌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꺾끗이 버티던 노원구와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 집값도 최근 하락 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중 4월 마지막 주(27일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 대비 하락한 지역은 노원(-0.02%)

거여·마천뉴타운 내달 첫 입주 프리미엄만 8억 '로또 아파트'

'e편한...' 84㎡ 입주권 15억

서울 강남권 내 유일한 뉴타운인 거여·마천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몸값이 경총 뒤편 있다. 조합원 소유 입주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팔려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거여·마천뉴타운 내 거여 2-2구역에 재개발한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아파트 단지가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는 1199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데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1순위 청약 당시 총 315가구 모집에 4817명이 몰리면서 평균 15.29대 1, 최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월 이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입주권은 최고 14억5456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15억 원에 달한다.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가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7년 분양 당시



전용 84㎡형 일반분양가(7억5000만~8억3000만 원선)와 비교해도 2배 안팎 수준이다. 전용 59㎡형 시세는 10억~11억 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거여동 S공인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아파트는 거여·마천뉴타운 내에서도 초기 재개발 단지로 주변 지역이 모두 정비되면 꽤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면서도 "이곳은 강남 내 유일한 뉴타운인 데다 워레신도시 북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입지를 지니 주변 인프라 개발 및 북위례 조성이 가시화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류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개재됐습니다

수도권 공공아파트, 최소 3년 의무 거주해야

국토부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 분양 아파트에 최소 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으면 5년, 그 이하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환매도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원래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비야호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상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수롭지 않고 실용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수롭지 않다.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변호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명질,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익히는 책 읽기 기술

어떻게 하면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뿐 아니라,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책상 띄우고, 출입구 한 곳 제한, 급식시간 두 배로 학교, 순차등교 준비... 통일된 지침 없어 혼란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달 13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학교들이 방역 상황 최종 점검에 나섰다.

5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급식실이나 교실 자리 배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조만기 경기 판곡고 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명씩 붙어 있던 책상을 분리하고 최대한 간격을 넓혔다"며 "특히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사는 투명 마스크를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식시간 담임 교사는 교실과 복도에서 학생을 관리하고, 순회 지도 교사는 화장실 출입 지도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구분	등교 시작일
고3	5월 13일(수)
고2, 중3, 초1·2, 유치원	5월 20일(수)
고1, 중2, 초3·4	5월 27일(수)
중1, 초5·6	6월 1일(월)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은 12개 반 370명이다. 조 부장은 "급식실은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서 "급식실에서의 감염 우려에 대비해 3학년은 3교시 이후, 1·2학년은 4교시 이후 급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 시 출입구 1곳에만 설치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도 이상의 증상 의심 학생이 발견되면 일시적 관찰실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대기시킨다"고 설명했다.

급식시간을 늘리기로 한 학교도 여럿 있다. 애초 50여 분의 급식시간을 학년별로 나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2시간 정도로 늘린 것이다. 급식 시간엔 서로 마주 보는 것을 자제하고 일렬로 줄지어 먹는다.

최승후 경기 대화고 진로상담부장은 "진로학생끼리 반찬을 나눠 먹거나 짐이 튀게 떠드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쉬는 시간에는 교사들이 2인 1조로 학교를 돌며 학생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통일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은 "수업과 급식의 방식, 증상 학생 기준과 관리, 감염자 발생 시 대응 등을 통일된 지침 없이 학교 자의적 판단에 떠맡길 경우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민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수업 시 교사와 학생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안 쓸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에어컨은 틀어야 할지 말지, 급식 여부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방역과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과 관련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학에서는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건국대·명지대·서강대·서울여대·세종대·숭실대·이화여대 등이 1학기 전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시,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린다

재건축때 도로·공원 대신 받기로
서울시가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는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물용·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에 확보된 도서관이 있어 기부채납을 공원 내 도서관 대신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한강에 인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공원 계획을,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바꿨다.

총 443가구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1가구를, 총 672가구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3가구를 각각 지역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코인원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엘로모바일, 64억 돌려줘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모(母) 기업 엘로모바일에 빌려준 120억 원 중 잔금 64억 808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이 2018년 7월 제기한 총 270억 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 중 120억 원에 관한 판결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인원이 엘로모바일을 상대로 "120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인원은 2017년 12월 21일 엘로모바일에 150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일을 2018년 3월 31일로 정해 대여했다. 또 2018년 2월 28일 120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일 2018년 3월 30일로 정해 대여했다.

코인원과 엘로모바일은 2019년 6월 10일 채무 변제를 위해 19억 원가량을 변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코인원은 해당 합의에 따라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해 데일리블록체인 발행 보통주식을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5일까지 8억1173억 원을 매도했다. 같은 해 12월 합의에 따른 대물변제액(약 19억 원)과 당초 임시로 산정했던 대물변제액의 차액 11억2975만 원을 120억 원에 대한 대여금 채무 원금(53억 5106만 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엘로모바일은 지난해 1분기 코인원 대여금 반환액 270억 원 중 62억 원을 상환했다. 또한 2019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여금 채무 원리금 10억9330만 원을 변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코인원 대여금 120억 원 중 잔존 원금이 64억8081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어린이날 선물 사러 왔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기로 한 가운데 5일 어린이날을 맞은 서울 중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이 모처럼 인파로 가득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인증합체 연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단서 찾았다”

김홍렬 하임바이오 대표, 연세대 의대팀과 공동 연구

확진자 검체 제공받아 숙주세포 내 복제 억제 사실 확인 이탈리아 연구실 실험 중...약학적 조성물 특허출원 완료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대사항암제를 임상 중인 바이오스타트업 ㈜하임바이오의 김홍렬(사진) 대표가 인증합체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부작용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연세대 의과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발견했다고 연세대 의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발표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검체를 제공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양한 사슬 길이의 인증합체가 여러 다른 농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세대학교에서 관찰한 결과, 특정 사슬 길이와 다른 농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가 숙주세포 내에서 억제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증합체는 음식물이나 의약품의 첨가제로 FDA의 공인을 받아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소재다.

김 대표는 발견 즉시 이 결과를 이탈리아 나폴리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소 CEINGE의 마시모 졸로 박사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체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인두 세포를 이용, 한국에서 실시했던 실험에서 사용한 동일한 인증합체 치료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확진자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수개국에서 수집한 확진자 검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동시에 비교 분석해 이미 공유한 상태로 다양한 부분의 염기서열이 변이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바이러스 복제능력의 변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해외 연구자들과 국제 공조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 “확진자 시료를 이용한 실제 감염증에 대한 인증합체의 복제 능력 저해 실험도 현재 이탈리아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로 발견된 ‘인증합체’는 1959년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아서 콘버그’ 박사에 의해 196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해 온 분야다. 이번 연구는 1997년도 독일연구팀에서 여러 사슬 길이의 인증합체가 다른 바이러스인 에이즈 바이러스(AIDS VIRUS: HIV-H1)에 감염 억제 기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착안해 시작했다. 인증합체는 최소 3개에서 최대 1000개 이상의 인산염이 서로 연결되어 선형을 이루고 있는 중합체다. 세균, 곰팡이, 식물, 포유동물 등 거의 모든 생물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질환 예방과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특허는 공동 발명자들과 하임바이오로 이전기로 100% 합의했다. 곧 국제 학술지를 통해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합체를 활용한 스프레이 제품과 난치성 분자아형암의 항암치료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항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요한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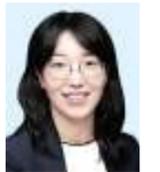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한국생명 부회장 선임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한국생명 부회장에 선임됐다.

4일 한국생명에 따르면 위 전 행장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한국생명 부회장으로 선임돼 이날 첫 출근을 했다. 위 전 행장은 한국생명·한국화재·한국증권 등 계열사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 전 행장은 서울고과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1985년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앞서 신한카드 사장, 신한은행장을 거쳤고 신한은행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KAIST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선임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박수경(47)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 선임 보좌관은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치며 정책참여 경험 등을 쌓았다. 특히 현재는 여성 최초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선임 보좌관은 생체시스템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더불어민주당, 외신대변인에
최지은 前 WB 이코노미스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세계은행(WB)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최지은 박사를 국제(외신 담당)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과 영국 옥스퍼드대를 거쳐 세계은행에서 근무했다. 1월 영입인사로 입당후 21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구에 출마,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과 겨뤘지만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또 당 대변인에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낸 당료 출신의 허윤정 의원을, 상근부대변인에는 박진영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조상호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홍남기(왼쪽 사진 가운데) 경제 부총리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구윤철 2차관(왼쪽)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의 시작에 앞서, 기재부 간부들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날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서울시



홍 부총리도 박 시장도, 이 모든 게 “덕분에~”

“한국 경제 회복 큰 힘 얻었다” “겨울이 가고 이제 여름 온다” ‘의료인에 고마움’ 챌린지 동참 팽수도 다음 주자로 지목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국민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에 동참했다.

홍 부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 ‘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를 단 글과 사진을 올리고 “한국의 모든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 지원 덕분에 한국 경제도 다시금 회복해서 일 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이 바로 한국의 슈퍼히어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박 시장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19의 겨울이 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며 “K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도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또 밤낮을 잃은 공무원 여러분,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 덕분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캐릭터 ‘팽수’도 ‘덕분에 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받았다. 김명중 EBS 사장은 같은 날 고양시 EBS 본사 ‘코로나19 교육지원 EBS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존경’과 ‘자부

심’을 상징하는 수어 동작을 하며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다음 주자로 마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EBS 라이브특강 이선희 선생님, 인기 펭귄 캐릭터 팽수를 지목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올리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덕분에챌린지’,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 3개를 붙이는 캠페인이다. 해시태그는 특정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 뒤에 단어나 문장을 띄어 쓰지 않고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것이다. 홍성덕 기자 hong@

SK이노, 언택트 ‘독거노인 영상’ 영상 댓글 수만급 응원 키트 전달

SK이노베이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독거노인 행복나눔 사랑잇기’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4일 회사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까지 거리 두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독거노인 응원 영상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네티즌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공유하면, 최대 300개까지의 댓글 수만급 SK이노베이션이 준비한 ‘마음 가까이 응원 키트’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

응원 키트에는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그레이프랩 플라워 박스와 손편지, 생필품 등 생활방역 세트로 구성



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음료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작한 독거노인 영상은 독거노인들과 이들을 돕는 생활지원사의 모습과, 코로나19로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외로워진 일상을 재현했다. 이번 이벤트는 SK이노베이션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진행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섬유탄소나노과장 제경희 △산업기술정책과장 안세진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선기 △석유산업과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서기관 승진 △통상교섭본부장 실 김이경 △감사담당관실 권순만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동철 △산업정책과 최익현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이원규 △산업기술정책과 최혜진 △지역경제총괄과 김등용 △에너지혁신정책과 김기일 △에너지효율과 이주영 △원전환경과 김홍국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성만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송지현 △무역정책과 최운석 △무역진흥과 신희숙 △수출통제협력추진단 이영주 △자동차항공과 황윤길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김종연 △석유산업과 신

유철 △통상법무기획과 최경진 △투자정책과 주현동

◆NH투자증권 ◇상무대우 신규선임 △Advisory실장 이주승

◆한양증권 ◇신임 본부장 △경영지원 본부장 배성수 △자산운용본부장 정진욱 ◇이사 승진 △디지털혁신부 류상호 △준법감시부 고명섭 △영업부 이미옥 ◇부장 승진 △O&T부 박상훈 △감사부 박재우 △PI부 정현영

부음

▲김봉희(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씨 별세, 김유성(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씨 동생상 = 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6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02-6986-4478

▲엄복애 씨 별세, 문성묵(한국국가전략

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권(전 국방부 보안정책과장)·성만(인천국제공항공사차장)·성진(서울경제신문 정치부 부국장) 씨 모친상 =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2072-2011

▲김병국 씨 별세, 김종성 씨 남편상, 김선영(Kiko Sori 대표)·기현(KBS 뉴스제작1부 팀장)·기수(우영파이낸셜 대표) 씨 부친상, 황보연(한겨레신문 사회정책부장) 씨 시부상 = 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발인 7일 오전 6시 40분, 02-3010-2294

▲김영수 씨 별세, 김충수(라운케이디 부장)·최수(SPC삼립 선임연구원) 씨 부친상, 김정숙(양우코퍼레이션 과장)·이은실(경향신문사 미디어제작팀 과장) 씨 시부상 = 5일,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30분, 031-961-9400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

현재의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에게서 국제적 협력체제를 도출할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그래서, 그나마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느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한국 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세기 대공황을 능가하는 수준의 경제적 충격을 몰고 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점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충격이 전대미문이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의 폭도 역시 전대미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여전히 코로나 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바이러스의 정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라도 바이러스의 재확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직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시나리오에는 과거 사스 사태 이후처럼 V자형 경기회복, 상당한 오랜 기간의 침체 후 회복을 의미하는 U자형 경기회복, 아예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L자형 경기,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I자형 경기에 이어 최근엔 W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바이러스가 잦아진 줄 알고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가 다시금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최악의 경우로, 지난 세기 초의 스페인독감이 이에 해당된다. 무책임으로 일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성급한 경기회복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이유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난 세기부터 최근까지 세계경제 및 정치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비록 미국의 경제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신속하게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의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적 지도력을 보였으며,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에볼라 바이러스를 '아프리카 바이러스'로 불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편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를 허물기 시작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최악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초래하면서, 유일한 정책 성과라고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며 '중국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노력뿐이었다. 미국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트럼프에 대항하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세계적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와 함께 둘 중에 누가 더 '독한 중국 때리기 선수(tougher China-basher)'인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더욱 비판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던 중국 역시 새로운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시늉을 하면서 시작했던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은 물론이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 관련 국제지원 과정에서도 알파한 정치적 계산이 너무 쉽게 드러나는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가 수습된 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전 세계적 재앙이며, 이는 코로나보다도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국제적 협력체제를 도출할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그래서, 그나마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느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한국 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경제·교역에 있어서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WHO를 중심으로 한 보건협력 등 다자주의 세계질서 부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이 커져야 할 시점이다.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를 제외한 모두가 기다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중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사회문제에 단순한 해법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요국들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과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상이 달라졌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연초부터 우리 사회의 간간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남겨 놓은 상처는 매우 깊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움츠러든 국민들, 특히 더 큰 타격을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는 그 충격을 딛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

야 할 사회적인 고통과 과제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생각이 모아져야 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사국을 경제비상사국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앙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등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한다. 일회적 재난극복을 위한 조치를 넘어서서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필

요하다.

현대의 사회현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전의 단순한 사회와는 달리 사회문제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갖는 다양성은 같은 문제도 대상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괄적인 치료보다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고 그에 알맞은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을 유효하는 임팩트금융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국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교두보로 나서고 있는 사회적은행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전향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금융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 따로, 지원 따로'가 아닌, 금융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임팩트금융은 복합적인 다중구조의 융합방식을 활용한다.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창출을 그 목표로 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와 참여가 병행된다. 기부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대출과 투자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공공 자선자금을 촉매로 활용하여 민간의 다양한 투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재무 수익의 기회를 높이면서 이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킨다. 혁신적인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임팩트금융과 사회적은행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순한 금융으로 보지 말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박수근(朴壽根) 명언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파고드는 것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간 그는 사후에 작품이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화가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빨래터' '나무와 두 여인' '아기 업은 소녀' 등이 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14-1965.

☆ 고사성어 / 조고각하(照顧脚下)
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 '삼불야화(三佛夜話)'가 원전. 송나라 선사(禪師) 오조법연(五祖法演)에게 '삼불(三佛)'로 불리는 뛰어난 제자 셋, 불감해근(佛鑑慧鑑), 불안청원(佛眼靑遠), 불과원오(佛果圓悟)가 있었다. 제자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갑자기 꺼지자, 선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불과원오가 '발밑을 보라[照顧脚下]'고 답한 데서 나왔다.

☆ 시사상식 / 버티컬 SNS
기존의 나열식 정보공유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 동영상, 게임, 책, 구인구직 등 특정 관심 분야의 정보만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말한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처럼 한 영역에 집중하는 버티컬(vertical) 방식은 관심 있는 공통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 속담 / 자발스런 귀신은 무릇 죽도 못 얻어먹는다
경솔하게 굴면 푸대접받다는 말.

☆ 유머 / 악몽은 악몽
악몽을 꾸다 깬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남편이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절세미인과 당신이 나를 차지하려고 피땀이며 싸우는 꿈이었어" 라고 하자 아내가 "끔찍한 꿈이긴 하네. 그래도 기분은 좋았을 것 아니냐?"라고 했다.

남편이 아내를 썰렁보며 한 말. "종긴 뭐가 좋아? 당신이 이겼는데."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모두가 위기라 말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예외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위기라는 말이 남발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도 외부 경계에 면역이 생긴 것 같다.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원), P-CBO(6조7000억 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정부 지원에 '돌다리도 두드려던' 기업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차피 힘들어지면 정부가 지원해 줄 텐데...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라는 분위기가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가 전한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분위기다. 앞뒤 안 가리고 빚내서 공간을 채우려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가.

기자수첩
이주혜 자본시장2부/winjh@

'무임승차'·'공짜점심'은 안 돼

하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4월 위기설'은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채안펀드의 자금 투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 긴급 수혈한 덕분이다. 실제 4월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예측 목표액에 매수 주문이 미달하는 사례는 신용등급 'AA-'인 한화솔루

션 외에 없었다.

회사채 발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저금리로 인한 회사채 호황은 그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에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차입이 기업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은 되새겨야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0%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구는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채의 약 40%는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기업지원 확대는 무작정 돈을 퍼주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예산 집행 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제도베이스에서 엄정 평가, 실효성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무임승차', '공짜점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몸에서 열이 나면 병이 나고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기업에 있어서 차입금은 우리 몸의 열과 같다. 과다한 차입금은 만병의 근원이다." 무차입경영으로 IMF 위기를 어려움 없이 이겨낸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남긴 말이다.

국민연금 '채권 똑따기' 괜찮나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내로라하는 큰손이자 장기투자기관이 단타매매(일명 똑따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이다.

실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전하는 최근 국민연금 행태를 보면 10년물 구간에서 지표물을 집중 매수하면서 경과물과 지표물 간 수익률곡선(일드커브)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각 시장안정과 금융회사 채권매수여력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두 차례 실시한 국고채 단순매입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금융회사들의 비지표 채권 매도를 받아주진 못할망정 되레 비지표물을 팔고 유동성이 좋은 지표물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은의 단순매입 목적을 반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 같은 여파는 국채선물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매매의 헤지를 위한 반대 매매가 증가하면서 최근 3년과 10년 국채선물시장에서 연기금 등의 일별 순매수 내지 순매도 규모가 자주 2000계약 넘게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매매패턴은 국채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연기금이 잔존만기 1년 이하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매도하고 잔존만기 2년 이하 통안채를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연기금 중에 국민연금도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이는 한은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면서 유동성 조절을 위해 통안채 발행이 확대될 것을 노린, 소위 롤링효과를 노린 투자전략이다. 롤링효과란 채권 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말

데스크칼럼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한다. 발행 확대로 통안채 일드커브가 가팔라질 경우 그 효과는 커진다.

반면, 국민연금 성적표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0.45%를 기록했다. 이 중 국내채권 수익률은 2.06%. 같은 기간 해외채권 수익률 7.8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작년 한 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거둔 수익률도 3.61%로, 같은 기간 해외채권에서 거둔 수익률 11.85%를 크게 밑돈 바 있다.

국민연금이 이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성과평가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즉, 국민연금이 최근 팀별 성과제를 개인 성과제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연금 운용본부 내에서도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익을 쫓아 단타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내 채권 담당 관계자는 "다른 팀은 모르겠지만 채권 쪽은 (성과평가제에) 변동이 없다"고 전하긴 했다.

국민연금은 과거 위탁자산운용사들로부터도 원성을 산 바 있다. 실적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면서부터다. 평가기간 좋은 성적을 내고도 일정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위탁운용사에서 배제되는 소위 레이싱(racing·경주) 시스템이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자산을 맡

은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피를 말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치다.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그만큼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앞선 상황은 다르다. 여러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우선, 투자 위험이 높은 단타매매를 통해 일정수익률을 그것도 꾸준히 내긴 어렵다. 큰손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메이킹(주도)할 수도 있었지만, 앞서 밝힌 성적표에서 보듯 꼭 그렇지도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여전채와 회사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 캐리만 취해도 수익률은 2%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운용담당자별로 투자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개인별 성과평가가 사실이라면 팀 내 운용전략이 공유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 내 개별 운용역끼리 시장에서 치고받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차원의 책임 있는 투자전략과 전술이 가미되기 어렵다.

끝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시장 혼란시 장을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종종 국민연금이 매수에 나서며 장을 떠받치는 게 한 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용납된다면 채권시장에서도 이 같은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게 온당하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쫓는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채권시장마저 흔들리던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없었다. 큰손다운 운용형태와 위기시 시장안정화에 나서는 큰형님 같은 위상을 갖춰 주길 바란다. kimnh21c@

시설

신흥국 위기 확산 우려, 충격 대비 만전을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멈춰던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재개되고 경제 전반의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가 계속 확산 중인 신흥국들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가 크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혼란과 충격이 워낙 심했던 탓에 신흥국 위기는 덜 주목됐었다. 그러나 피해의 강도는 더 크다.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 조정됐다. 2월 말 이후 브라질 헤알과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20% 이상, 남아공 랜드 및 터키 리라, 러시아 루블 등도 10% 이상 떨어졌다. 산유국이나 원자재 수출국은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재정 또한 비상 상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1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000억 7000만 달러(약 1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 236억 달러의 4배를 웃돈다. 문제는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정책대응 수단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신흥국만 90여 개 국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과 실물 부문의 심대한 충격을 예고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앞으로의 위험요인으로 신흥국을 꼽았다. 동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급격한 자본유출, 통화 가치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가 글로벌 경제를 더욱 침체로 몰아넣고, 우리 경제의 2차 위기로 전이(轉移)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봉쇄정책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재정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돈풀기로 고꾸라지는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신흥국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공공의료 지원이 보잘 것없이 혼란이 가중되고, 재정이 거덜난 상황에 직면한 나라도 적지 않다.

주력 수출시장인 신흥국 불안은 한국 경제의 위기다. 멕시코·남아공·러시아·브라질·터키 등 주요 신흥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IMF)도 이미 -5%대 이하로 떨어져 있다. 세계 경제의 최대 하방요인이다. 우리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국내 기업의 신흥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도 매우 높다. 이들의 금융위기에 따른 파장도 대처하기 어려운 마당에, 교역 감소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고위험 국가에 대한 수출입과 직접투자, 금융거래 등 당면한 리스크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시장 안정 방안, 신흥국 위기의 국내 전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설경진의 시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대한민국 서울의 방역을 지침으로 여기고,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람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WEA 컨퍼런스 : 팬데믹(대유행)과 동아시아'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0%가 넘는 치명률이 보고되는 등 인명 피해, 경제 손실, 사회 붕괴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코로나19 대응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박원순표 코로나19 대응법을 배우려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한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박원순표 코로나 대응법

르스)이 덮쳤을 때의 경험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다소 요란스러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강경론을 펼쳤다. 특히 "능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박 시장의 감염병 철학과 맞닿아 서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보급, 다산콜센터(120) 운영, 대중교통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매일 코로나19 브리핑 등을 시행했다. 또 박 시장은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은평성모병원, 구로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자마자 담당자를 당일 현장에 파견, 발생 장소와 상황을 장악하고 확진자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확인, 전수조사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중국발 입국자 명단 요청, 광화문 집회 금지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시행, 콜센터·노래방·PC방 전수조사 등이 모두 서울시가 한발 앞서 시행했다. 시민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한 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중증도별 치료시설 분리 등으로 대응했다. 박 시장의 적극 대응으로 5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4일)과 마찬가지로 이틀째 '0명'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5일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을 시작한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전히 가을 이후에도 지금보다 더 큰 코로나19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한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불길처럼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려해야 한다. 선부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혁하자마자 급속도로 확산된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6일부터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점검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 skj78@

세무, 특! 현명한 절세를 위한 작은 습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금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 왔다. 조세 정책은 때로는 국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세금이 존재한다. 죽음과 비교될 정도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세금은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세법에 대한 '관심'이다. 세법은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은 데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익숙해지기가 힘들다. 그러나 세법이 자주 바뀌는 만큼 변화의 추세를 알면 미미하지만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다. 세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사실에 대

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절세의 방법이 있어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중 대다수는 사전에 계획하는 경우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타이밍을 놓쳐 본래의 세금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내는 경우를 목격해 왔다.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위의 두 가지 습관을 갖기 어렵다면 주변에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친분을 쌓는 방법을 권한다.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공부하는 것도 싫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체질에 안 맞는다면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찾아 친분을 쌓아 보는 방법이다. 친분을 쌓기 위한 밥 한 끼의 비용이 세금 절감을 통해 수십, 수백 배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아까워하지 말자. 세금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세금 절감을 위한正道(正道)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나는 노력형 채식주의자

나는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겐 옷장보다 더 큰 비스포크가 있다

모두에겐 자신만의 비스포크가 있다

16개의 컬러 x 11개의 타입 = 원하는 라이프에 모두 맞춤

당신만의 비스포크는 무엇인가요?



Satin Beige
Satin Orange
Glam Deepgreen
1도어 + 2도어

E R G 0 1 2

지금 삼성닷컴에서
#MYBESPOKECODE를 만들어 보세요

BESPOKE